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 활용 연구

- 조선후기 인물전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차 진 희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 활용 연구

- 조선후기 인물전을 중심으로 -

심 치 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차 진 희

# 인 준 서

차진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본고는 고전 전기문학,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인물전과 관련하여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을 모색하였다.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학 과목의 경우에도 읽기와 쓰기, 수용과 창작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기르도록 추구하고 있지만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요소와 활동들은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고전 전기문학의 개념과 전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전기문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주로 어떠한 학습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된 텍스트 가운데 고전 작품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의 통합 교육 차원에서 고전 전기문학을 논의하는 것의 가치를 구체화하고 좀 더 나은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읽기 영역에 치우친 문학 교육을 쓰기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해 『작문』 교과서 내의 전기 쓰기를 살펴보았다. 전기 쓰기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사실성이나 정보성의 측면에 비해 문학성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한 채 인물의 생애와 관련하여 정보를 나열

하는 수준의 학습에 그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고전의 전기문학 작품과 전기 쓰기를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다룬다면 읽기와 쓰기, 이해와 표현, 감상과 창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작품을 제시하여 읽기 활동을 통해 이해와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에 과정중심의 쓰기 이론에 근거하여 쓰기 차원의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물의 생애와 관련하여 단순히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쓰기 차원의 요소들 즉, 입전 인물 선정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형상화한 후 인물을 평가하는 활동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 연구 검토 .....	3
3. 연구 방법 .....	6
II.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의 개념과 전개 .....	8
1. 전기의 일반적 개념 .....	8
2. 고전 전기의 개념과 전개 .....	14
1) 고전 전기의 개념 .....	14
2) 고전 전기의 전개 .....	17
III.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	21
1.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 .....	21
2.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 관련 교육 현황과 문제 .....	27
3.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에 있어서 전기문학의 가치 .....	36
IV.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고전 인물전 교육 방안 .....	39
1. 읽기와 쓰기의 장르적 연계를 위한 『작문』 교과서 내 전기 쓰기 탐색 · 39	
2. 전기 쓰기 단계에 따른 작품의 수용과 활용 방안 .....	49
1) 입전 인물 선정과 자료 수집 .....	52
2) 인물과 관련하여 관점 정하기 .....	57
3) 개성이 드러나도록 형상화하기 .....	60
4) 인물에 대한 평가 .....	70
V. 결론 .....	75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	22
<표 2>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향의 통합 지도 관련 부분 .....	26
<표 3> 7~10학년 『국어』 교과서 내 전기문학 작품 수록 현황 .....	28
<표 4> 『문학』 교과서 내 고전 전기문학 작품 수록 현황 .....	29
<표 5> 『문학』 교과서 내 고전 인물전 관련 학습활동 .....	32
<표 6> 출판사별 『작문』 교과서의 ‘전기 쓰기’ 관련 학습 내용 .....	41

# I. 서론

## 1. 연구 목적

해방 직후의 교수요목기부터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7차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은 교육 이론의 발전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변천해왔다. 뚜렷한 구성이념이나 목표 없이 읽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였던 초기 교육과정부터 많은 변화가 거듭되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학습자의 국어능력 신장에 두고, 이 때 국어 능력은 담화와 그의 수용, 생산 능력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국어과 6영역의 교육 내용을 ‘실제’, ‘지식’, ‘기능’, ‘맥락’으로 범주화하여 내용 체계를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을 구성 체제에 따라 영역별로 제시하는 것은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같이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하는 국어과 교육은 언어가 가진 총체성을 간과하고 자칫 영역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흐를 수가 있다. 영역 구분은 국어과 교육의 내용을 구분 짓는 접근 방법일 뿐이다. 국어과 교육이 영역의 특수성과 영역 간의 통합성을 모두 고려한 교수·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듣기와 말하기는 전달 매체와 상황 맥락의 공유로 인해 통합적 교육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재나 수업에서 이미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읽기와 쓰기의 경우에는 그에 비해 통

합성이 약했다. 따라서 영역 통합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논의는 주로 읽기와 쓰기(또는 독서와 작문)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온 편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그 일환으로 고전 전기문학을 읽기와 쓰기(혹은 이해와 표현, 수용과 창작)의 통합 교육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 전기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심화 과목인 『문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 교육의 경우 과거에는 단순 지식과 분석 위주의 수동적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나 수업의 주된 방향과 지침이 되는 교과서,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의 문학 수업을 살펴보면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며, 적극적인 감상을 위한 토론이나 창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온전한 문학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수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글을 써보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독서와 작문 교과에서는 비문학 영역의 활동을 주된 학습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문학 영역은 문학 교과로 넘어가게 되므로 문학 교과에서는 읽기와 쓰기, 이해와 표현, 수용과 창작의 양쪽 측면을 모두 고려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것은 현대 문학 작품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고전 작품도 읽기와 감상의 차원에서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전의 경우에는 더욱 읽기와 감상 위주의 학습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쓰거나 창작 교육으로의 논의나 프로그램 개발은 많이 미흡한 편이다.

고전 전기문학의 경우, 다른 산문 장르의 글쓰기 양식에 비해 간결

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쓰기 교육으로의 연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내용 자체는 짧지만, 고전 인물전이 지닌 전기문으로서의 완결성은 충분치 못한 수업 시수 속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글쓰기를 위한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전기 문학은 학습자의 내적 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르이다. 개인의 삶을 다룸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타인의 삶과 가치관을 마주하게 하고, 그것을 비판해보거나 교훈으로 삼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세계를 바라보는 보다 폭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기르게 된다.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시대가 변하더라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고전 전기문학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소중한 깨달음과 감동을 준다. 그러나 다른 장르의 고전 문학 작품들에 비해 지금까지 제대로 주목 받지 못하였고, 그나마도 수동적 차원의 읽기 위주 학습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고전 전기 문학 작품을 통해 전기 쓰기에 대한 과정을 보다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실제 전기 쓰기 활동으로 연결시켜 보도록 한다면 국어과에서 지향하는 영역 통합적 교육, 즉 읽기와 쓰기, 이해와 표현, 수용과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2. 선행 연구 검토

고전 전기문학에 관한 연구는 장르적 문제에서부터 인접 장르와의 비교·분석, 개별 작가와 작품, 교육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전의 장르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sup>1)</sup>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아가 전과 소설의 관계양상을 살

1) 최창록, 「한문학 장르의 근원연구」, 『비교문학』 제2집, 비교문학회, 1978.  
최신호, 「전기(傳記)·전기(傳奇)·소설(小說)」, 『성심어문논집』 5집, 1981.

피거나<sup>2)</sup>, 인접 장르와 비교하는 연구<sup>3)</sup>도 이루어졌다. 또한 전의 장르적 성격에 주목 하던 것에서 벗어나 문인들의 문집에 실린 전 작품을 개별 작가와 작품 측면에서 살핀 연구들<sup>4)</sup>도 있다. 박지원이나 이옥의 경우에는 그들의 문집에 실린 인물전 작품을 문학 교육적 측면에서 살핀 연구들이 여러 편 있다.

국어교육에서 쓰기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전 연구로는 장르적 특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정순<sup>5)</sup>은 『동문선』에 수록된 인물전을 대상으로 하여 전을 보고 장르로 규정하고 인물에 대한 보고적 글쓰기의 원리들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 양식을 이해하

김균태, 「전의 장르적 고찰」, 『우전신호열선생고회기념논문집』, 창작과 비평사, 1983.

성기옥, 「전의 장르적 검토」, 『울산어문논문』,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화, 1984.

2) 조태영, 「전양식의 발전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주명희, 「〈전〉의 양식적 특징과 소설로의 수용 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1985.

조태영, 「전의 서술양식의 원리와 그 변동의 원리」, 『한국문화연구』 제2집, 경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5.

박희병, 「한국문학에 있어 <전>과 <소설>의 관계양상」, 『한국한문학연구』 제12집, 한국한문학학회, 1985.

박희병, 「조선 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3) 김혜숙, 「전(傳)·서사(書事)(기사(記事))·야담의 대비적 고찰」, 『한국관소리·고전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5.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I)-설화·야담·소설과 전 장르의 관련 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 제53호, 1988.

박희병, 「이인설화와 신선전(II)-설화·야담·소설과 전 장르의 관련 양상의 해명을 위해」, 『한국학보』 제55호, 1988.

김균태, 「조선 후기 인물전의 야담취향성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제12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89.

정명기, 「전과 야담의 엮물림(I)」, 『한국언어문학』 제33집, 한국언어학회, 1994.

4) 이화규, 「권필의 전문학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이승복, 「번암 체제공의 ‘전’ 연구」,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임정현, 「이옥 전 작품의 양식적 특성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정병호, 「조선 후기 중인층의 전 연구」,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김정일, 「조선 후기 여향인물전 연구」, 동아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김동관, 「이옥의 ‘전’문학 연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김보라, 「여향인물전을 활용한 전기문학 교육 방안」,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은선, 「‘전’문학의 교육방향과 교육적 가치: 이옥·김려 ‘전’을 중심으로」,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5) 장정순, 「장르 개념을 활용한 쓰기 교육 : 인물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청어문 28, 2000.

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인데, 학생들로 하여금 보고적 글쓰기를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써 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깨닫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주재우<sup>6)</sup>는 전을 통해 전기 쓰기의 수행적 측면과 관련하여 살펴봄으로써 전통적인 전에서 오늘날 전기 쓰기 교육에 시사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였다. 그 내용으로 공동체적 가치와 관련하여 인물 선정하기, 객관적 기록과 자료 수집하기, 일화를 통한 내용 생성하기, 인물 평가하기를 제시하였다.

이영호<sup>7)</sup>는 금석(金石)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는 비지류 양식에 주목하여 압축적 전기 쓰기에의 시사점과 원리를 제공하였다. 그는 조선후기의 농암 김창협과 연암 박지원이 전대의 비지류 양식이 지닌 상투성을 비판하고 비지류 글쓰기에서 인물의 생애에 대한 대체의 설정과 인물 형상화에 있어 일화의 효과적인 활용을 강조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인물상을 구현한 바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전의 장르적 특성이나 개별 문인들의 전 작품과 관련한 연구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들도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적 활용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학 교육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전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 차원으로 끌어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온전한 의미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의 고전 인물전 같은 경우는 글쓰기와 관련하여 학습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 훌륭한 고전 작품을 작문 능력 향상을

6) 주재우, 「전을 중심으로 한 전기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4.

7) 이영호, 「碑誌類 樣式을 활용한 傳記 쓰기 敎育 연구」, 『語文研究』 제34권 4호, 2006년.

위한 학습 자료로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요, 고전을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깊이 있게 감상토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3.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고전 전기문학을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전기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고전 전기의 개념과 시대 흐름에 따른 전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기문학이 우리 문학사에서 갖는 의의를 알아보고, 뒤에서 이루어지게 될 교수·학습 방안의 활용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다.

Ⅲ장에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과 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영역별 학습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점차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통합 교육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교수·학습 방안으로 모색하게 될 고전 전기 문학과 관련하여 『문학』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작품과 학습 요소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 국어과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영역 통합적 교육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Ⅳ장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 차원에서 고전 인물전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현 『작문』 교과서에서는 전기 쓰기를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학습토록 하고 있는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작품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가운데 고전

작품의 활용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볼 것이다. 이로써 고전 인물전을 통합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논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의의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의 관점에서 전기 쓰기의 일반적 절차를 단계화 하고, 그 단계 안에서 고전 인물전을 제시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작품의 읽고 감상한 후 해당 전기 쓰기의 단계에 맞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쓰기 차원에서 작품을 다시 한 번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다.

## Ⅱ.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의 개념과 전개

### 1. 전기의 일반적 개념

전기는 특정한 개인의 삶을 기록한 글쓰기 양식이다. 중국 사마천의 『사기』 「열전」이나 김부식의 『삼국사기』 「열전」 그리고 『플루타르크 영웅전』 등에서 동서양 전기의 초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전기로 쓰여지는 인물은 주로 남다른 경험이나 업적, 인격 등을 가진 영웅이나 위인으로, 그 목적은 사실의 보존이라기보다 국민의 교육이었다.

서양의 경우 근대로 오면서 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개인의 역사를 기록한 전기는 더욱 많이 쓰여지게 되었다. 전기는 차차 교훈적 성질 및 역사적 사실 전달을 부차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고, 개인의 독특한 삶의 경험이나 여정에서 느끼게 되는 흥미를 강조하게 되었다. 이후 실증주의적 작품에서부터 해석적 또는 비평적 전기가 등장하기까지 다양한 전개 양상을 보여왔다. 비평적 전기, 즉 평전에서는 한 인격의 통일적 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저자가 사료를 선정하고 해석하여 이를 잘 다듬은 문체로 처리한다. 평전의 저자는 인물의 형상화라는 일종의 예술, 즉 문학에 참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8)</sup>

동양에서도 초기 사관들에 의해 지어진 열전에서 점차 문인들이 사사로이 입전한 사전이 출현하게 되며, 가문이나 가족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식의 글들이 쓰이게 된다.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전기에 해당하는 전통적인 글쓰기 양식으로 전(傳)이 있다. 전은 전기(傳記)

<sup>8)</sup> 전기에 대한 일반적 개념은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0 참고.

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 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을 전(傳)이라 하고, 사건을 중심의 전말을 묘사한 글을 기(記)라 한다. 전은 전수의 뜻이 강조되고 기는 해석의 뜻이 강조된다. 그러나 한 인물의 시말을 서술한다 하더라도 서사적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라 한 것도 있으며, 전이라 한 것도 있고, 전기라고 함께 부른 경우도 있다.<sup>9)</sup>

인물의 생애를 다룬다는 점에서 전은 비지(碑誌), 행장(行狀), 애제(哀祭)류와 유사하다. 비지류는 금석(金石)에 적어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서문에는 사자의 평생 사적을, 본문은 사자를 애도하거나 작자의 감회를 서술하게 된다. 행장은 한 인물이 죽은 뒤 자손들이나 문하생, 옛 친구가 고인의 행적을 기록한 산문이다. 그 자제들이 기록한 가장(家狀)을 기초로 하여 명망이 있는 인사를 찾아가 의탁하여 행장을 짓기도 한다. 이러한 행장은 다른 양식을 짓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행장은 묘비명의 작성뿐 아니라 전을 짓는데도 유용한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애제류는 죽음을 슬퍼하는 글로서 공식적인 행사나 제사를 위해 지어진 글이다. 여기에 속하는 글은 인물의 생애를 재구성하거나 모두 기록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추도나 애도의 감정을 담아내는데 있다.<sup>10)</sup>

위의 양식들은 실재한 인물의 생애를 대상으로 기록하는 문학이란 공통점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비지전장류(碑誌傳狀類)라고 통칭하여 쓰이기도 한다. 다만, 비지류는 고인을 추도·애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청탁에 의해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폄(褒貶)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전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9) 김용덕, 『전기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2006, p15.

10) 주재우, 「전을 중심으로 한 전기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4, pp15~16 참고.

오늘날 광의로서 전기의 개념은 동서양의 전기가 전개시켜온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틀을 포함하여 인물의 생애를 기록한 글쓰기 양식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 특징에 따라 세분되는 전기의 하위 갈래는 다음과 같다.

① 전기(傳記) : 좁은 뜻의 전기문으로서, 한 인물의 일생 또는 그 일부를 기록한 글이며 사실성을 바탕으로 소설적 형식으로 처리한 글이다

② 자서전(自敘傳) : 자기 일생에 관한 내용을 자신이 쓴 글이다. 요즘은 전문 작가에게 내용을 불러 준 뒤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내놓기도 한다.

③ 평전(評傳) : 작가가 역사적 자료를 선정하고 해석하여 정리한 비평적 전기로서, 어떤 인물의 역사적, 사상적, 문학적 업적 등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주요 내용을 이룬다.

④ 회고록(回顧錄) : 자신의 일생 중에서 특히 중요한 활동 부분만을 기록한 글이다.

⑤ 열전(列傳) : 여러 사람의 전기를 한데 모아 차례로 기록한 글로, 역사적으로 같은 계통이나 비슷한 일을 한 사람들의 업적이나 일화를 기록한 글이다.

⑥ 수기(手記) : 어떤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주관적인 글이다.

⑦ 행장(行狀) : 죽은 이를 추모하여 쓴 전기로, 그와 관련 있는 사람이 고인의 평생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주로 추모하려는 의도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찬미적 성격을 띤다.

이처럼 오늘날 전기의 개념은 인물의 생을 기록한 다양한 내용과 글쓰기 양식을 포함하며, 각각의 양식에 따라 그 특성도 차이를 보이

게 된다. 넓은 의미의 전기 개념에서 이들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은 크게 사실성, 교훈성, 문학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기는 사실에 충실하다. 이는 소설과 구별되는 전기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인물의 삶과 그들이 사는 세계를 문학적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지니지만, 전기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소설과는 차이점을 지닌다. 물론 전기의 경우도 인물에 심리나 대화 등은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표현하게 되지만, 사실적 요소와 인물을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허구성을 전제로 한 소설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작자는 사료를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처음에 이 전(傳) 가운데 양파(陽坡) 정태화(鄭太和)의 행적이 한 조항 들어있었지만, 그 후에 『승정원일기』 및 이기남이 남긴 서찰에 의거해 그 실상이 그렇지 않은 줄 알게 되었다. 또 지금의 봉조판서 남구만과 이조판서 이민서 두 분이 힘써 그 서술이 상실(喪實)임을 말하였다. 대개 이 전은 처음에 삼家の 제자로서 목도한 자는 없다. 생각건대, 그것이 전문(傳聞)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믿을 만함이 『승정원일기』나 이기남이 눈으로 본 것을 쓴 서찰, 그리고 남(南)·이(李) 두 공의 말만 못할 듯하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다.<sup>11)</sup>

위에 제시된 자료는 우암 송시열이 쓴 「삼학사전(三學士傳)」의 일부로, 그가 쓴 전 가운데 나중에 사실과 다른 증거가 발견되자 삭제해버렸다는 내용이다. 전에 기록한 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발견하자 그 내용을 변경하는 태도를 통해 사실의 전달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11) 송시열, 「삼학사전」, 『尤庵集』. (김성진, 「글쓰기에서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회』, 2003에서 재인용).

알 수 있다.

둘째, 삶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준다. 전기에는 인물의 삶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는데, 독자는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가치와 견주어보게 된다. 이러한 전기의 윤리·교훈적 측면은 초기에 전기 작품을 창작될 때부터 이미 중요하게 여겨졌던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송시열의 「삼학사전」도 병자호란(인조 14년, 1636) 때 척화(斥和)를 주장했던 3학사 홍익한(洪翼漢), 윤집(尹湊), 오달제(吳達劑)의 충심과 선비정신을 기리기 위해 집필된 것이다. 세 신하는 병자호란이 끝난 뒤 청태종에 의하여 심양에 압송되어 항거하다가 결국 인조 15년(1637)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후 홍익한에게는 충정(忠正), 오달제에게는 충렬(忠烈), 윤집에게는 충정(忠貞)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모두를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삼학사전」은 숙종이 삼학사의 선비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송시열에게 집필하게 하였던 것이다. 열녀나 효자에 관한 전이 많이 기록되었던 것도 다른 백성들에게 미칠 윤리·교훈적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 인물이 반드시 역사적 위인이나 본받을 만한 인물일 필요는 없다. 자신과 별로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물의 소소한 일상이나 도덕적이지 못한 인물의 삶을 다룬 글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은 더욱 다양한 인물들의 삶이 글에 담기고, 또 읽히게 되면서 위인이나 영웅들의 전기만을 고집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 문학성을 지닌다. 전기는 실제 인물의 삶을 기록한 것이지만, 단순히 사실성과 정보성만을 지니는 글은 아니다. 훌륭한 전기는 인

물의 생애를 단순히 나열하여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보다 생생한 인물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자료의 선택과 제련이 중요하다. 인물의 개성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사건을 포착하고 형상화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작자의 몫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 서술하느냐에 따라 묘사와 기교를 달리 할 수 있다. 인물의 다른 누군가와 주고받는 대화나, 속마음,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들은 그것을 서술하는 작자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표현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56년 9월 6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저 달빛만 창문 가득히 쏟아져 들어와 흰 침대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날 이중섭은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이튿날, 적십자 병원 영안실 게시판에는 그의 죽음을 알리는 글이 적혀 있었다.

제시된 글은 ‘화가 이중섭’<sup>12)</sup>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중섭은 1959년 9월 6일 적십자 병원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는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가을로 들어서서 문턱에서 걸을 지켜주는 가족도 없이 혼자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중섭의 쓸쓸한 내면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처럼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해 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인물과 관련하여 아무리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나름대로 의미있게 조직하여 살아있는 인물로 형상화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독자로 하여금 깊은 감동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이처럼 문학성은 사실성, 교훈성과 함께

---

1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2 교과서, 2008, p20. (1단원 ‘능동적으로 읽기’ 가운데 (1) 화가 이중섭의 일부).

전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사실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주 언급되고는 하는데, 두 측면이 균형 있게 다루어진 작품 이라야 보다 수준 높은 전기라 할 수 있다.

## 2. 고전 전기의 개념과 전개

### 1) 고전 전기의 개념

전(傳)은 본래 현인(賢人)이 경(經)에 의거하여 뜻을 일으켜서 저술한 것으로, 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경서와 함께 읽을 만한 보조물로 여겨졌다. 경전은 그 뜻이 관념적이고 어려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경문에 없어도 후세에 알릴만 한 일이라면 첨가해 해설하는 해경지학(解經之學)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 가운데 공자의 『춘추(春秋)』를 풀어 서술한 좌구명(左丘明)의 『좌전(左傳)』이 대표적이다. 공자의 『춘추(春秋)』는 노나라의 사관이 남긴 기록을 근본으로, 자신의 정치 이상에 입각하여 비판과 포폄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그 뜻이 관념적이고 어려워 구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좌구명은 춘추시대의 사회상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탕으로 경문을 실증적으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일찍이 유협(劉勰)은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좌구명이 개척한 전 양식에 대하여 ‘전(傳)이란 전(轉)이다. 즉 경서의 뜻을 전수(傳受)하여 후세에 다시 전수(傳授)하는 것이다. 이는 실로 성인(成人)의 저작의 날개가 되고 사적(史籍)의 선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여 『좌전』에 나타난 전의 기본적인 성격을 밝히고, 아울러 역사 산문으로서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열전(列傳)」에 와서 변화를 겪게 된다. 경전의 해석으로서가 아니라 인물에 대한 서사로서 인식하였고, 서술 대상을 구체적 인물로 한정시켰다. 열전의 창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마천이 개개의 살아 있는 인간을 역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열전의 목적은 단순히 개인의 생애를 기록하고 소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기·세가·표에서 전개되는 사건의 흐름과, ‘서’에서 서술된 문화 전반의 변천을 그 주체를 통하여 보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려는 것이며, 따라서 역사 속에서의 인간보다는 인간의 행동과 의지를 통한 역사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에 열전은 필연적으로 개개인의 인간을 아주 미세하고, 즉 세분하는 감각에 서의 표현을 추구하게 된다.<sup>13)</sup>

실재하는 한 인간의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삶의 세부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전 양식은 ‘허구의 진실’<sup>14)</sup>을 추구한다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작자는 구성방식이나 서술양상에 있어 다양화를 피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해 전달하는 것에 무게 둔다면 대체로 사건이나 인물 행동의 전후 맥락을 중시하여 시간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겠지만, 인물에 대한 해석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인물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일화의 단편적, 삽화적 구성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사마천의 『사기』 이후로 후대의 역사서들이 그 체제나 형식을 답습하게 되면서 열전 형식은 역사 서술의 중심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사관(史官)에는 전을 짓는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문사일체관(文史一體觀)을 지녔던 일반 문사층(文士層)에서도 열전의 문학적

13) 곽정식, 「한국 전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성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p14.

14) 곽정식, 위의 논문, p21.

수용이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후자는 전자보다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다채로운 변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당나라 때 와서는 전의 수용이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당·송 시대의 한유, 유종원 등의 뛰어난 문장가들에 의해 전이 지닌 다양화의 가능성은 작품을 통해 구체적 양상을 드러내게 되었다.

명의 서사증(徐師曾)은 『문체명변(文體明辯)』에서 고금의 여러 전을 사전(史傳), 가전(家傳), 탁전(托傳), 가전(假傳)의 사품(四品)으로 나누었다. 사전(史傳)은 사관(史官)에 의해 씌인 정사(正史)의 열전(列傳)에 해당하고, 나머지 가전(家傳), 탁전(托傳), 가전(假傳) 일반 문사에 의해 씌인 사전(私傳)이다. 가전(家傳)은 인물의 행적 사실을 서술하여 드러나지 않은 탁월함이나 가치있는 인간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주로 불우한 일생을 살았거나 현달을 포기하고 은일(隱逸)한 인물을 입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 탁전(托傳)은 행적이나 인간성을 드러내기보다 인물의 어떤 측면을 통하여 세상을 풍자하고 세인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이다. 가전(假傳)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것의 일대기를 허구적으로 구성해 우의적으로 드러내기 것이다. 이 가운데 가전(家傳)이란 명칭은 통시적으로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일반 문사들이 자유롭게 전을 짓게 되면서 이것이 가문을 중시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과 결부되어 한 가문 사적을 서술하는 전이 생겨났고, 사전(史傳)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자 높은 신분의 관리들도 사전(史傳) 밖에서 입전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들도 가전(家傳)으로 포함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열전으로 『삼국사기』 「열전」을 들 수 있다. 전체 10권 50항으로, 10권 중 3권에 김유신의 전기가 수록되었고, 나머지 7권에 삼국시대의 충효, 용사, 문인, 반역인 등 50명의 전기

가 수록되었다. 대표적인 인물으로는 김유신, 박제상, 최치원, 설총, 궁예, 견훤 등이 있다. 이처럼 초기에는 국가의 공적인 역사 기록으로서 열전이 주로 지어졌으나, 후대로 갈수록 개별 문사들에 의해 입전된 사전이 많이 지어졌다. 문인이나 학자들이 자신의 문집에 사사롭게 기록함으로써, 한층 자유로운 시각과 형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주변의 특이한 삶을 살았던,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그대로 묻혀버릴 법한 인물을 주로 입전하였는데, 다른 무엇보다 ‘인물’을 주목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인물전(人物傳)이라 하기도 한다. 조선 후기로 가면 사회적 변화양상과 맞물려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의 삶이 인물전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작가로는 박지원, 이옥, 김려 등을 들 수 있다.

## 2) 고전 전기의 전개

문헌으로 확인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은 원효의 「자장전(慈藏傳)」이다. 뒤이어 8세기 초경에는 김대문(金大問)의 『고승전(高僧傳)』이 나왔고, 원성왕 때에는 국사(國師)를 지내기도 한 연회(緣會)가 원효의 스승이었던 낭지(郎智)의 전을 지었다. 그러나 이들 전은 모두 전하지 않으며, 연회 이후 신라인으로 전을 지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9세기 말에 활동했던 최치원이다.<sup>15)</sup>

신라를 거쳐, 13세기 즈음까지 씌여진 전의 성격은 크게 고승전과 정사(正史)의 열전으로 대별될 수 있다. 승려의 전은 문인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같은 계층의 승려들에 의해 씌여지기도 했는데, 주로 승려의 높은 도와神通력, 신이담 등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반 문인들 사이에서 후대처럼 일반화된 양식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

15)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였으며, 몇몇 문인들에 의해 씌여지거나 역사 편찬과 같은 특별한 목적과 동기에 의해 저술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작자는 자유롭고 가벼운 필치로 전을 ‘창작’ 한다기보다, 신성한 대상에 대해 경외감을 갖고 경건한 태도로 전을 ‘찬술’ 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다 12세기 후반~13세기 전반기부터 전(傳) 문학은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게 된다. 임춘(林椿)이나 이규보(李奎報)같은 문인들은 전대의 전(傳) 관습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보다 자유로운 창의에 입각하여 자신의 개인적 관심과 지향에 따라 전을 창작하려 하였다. 이전의 공식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내면적, 문학적 동기가 전을 쓰는 보다 중요한 계기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고승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보다는 자기 나름의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한 사람들을 입전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으며, 이전에 비해 문학과 소재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층 발전된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고려 후기의 전으로는 이숭인(李崇仁)의 「배열부전(裴烈婦傳)」, 이곡(李穀)의 「절부조씨전(節夫曹氏傳)」 등이 있다. 사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생을 다룬 가전도 많이 창작되었는데, 임춘의 「국순전(麴醇傳)」과 「공방전(孔方傳)」, 이규보의 「국선생전(麴先生傳)」, 「청강사자현부전(淸江使者玄夫傳)」, 석식영암의 「정시자전(丁侍者傳)」 등이 있다.

조선 전기는 지배 계급인 양반 사대부가 훈구파와 사림파로 분화되고 그로 인한 권력투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자기 계파 내부의 문제나 자기 계파의 정치적 입장 등을 전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전이 한층 강한 당파성을 띠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과 접근을 취하고 있는 전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임·병 양란과 신분제의 동요, 상품

화폐경제의 발전 등은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 면에서도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였고,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인물을 포착하고 형상화하도록 하였다. 작자는 단순히 입전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문학세계를 넓혀가는 글쓰기로 삼을 수 있었다. 하층민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고나 교류를 하던 문인들은 서민들의 삶과 사회 현실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담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관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표출하였다.

17세기 초, 홍세태(洪世泰)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조선후기의 여항인물전은 이후 정래교(鄭來僑), 박지원(朴趾源), 이옥(李玉), 조희룡(趙熙龍) 등을 통해서 심화·확대되어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신분 계층의 인물군상이 입전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가, 역과, 악공, 가객, 유협, 의관, 거지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지어 사기꾼도 있다.

홍세태의 전에는 서술 방법에서 일화의 일대기적 단순 나열이 아니고 회고적 방법을 통한 시제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며, 대화에 있어 묘사적 진술이 나타난다. 정래교는 총 6편의 여항인물전을 입전하였다. 그의 전에는 입전인물들이 다양화되어 불의에 저항하는 예인전, 빈민들을 구휼하는 유협전, 신묘한 능력을 지닌 의인전 등 조선후기 여항인물전의 하위 유형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박지원은 미치광이, 인분수거꾼, 거지 등 전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천민들로 인물들을 확대하여 하였으며, 소설적 요소와 장치로 이러한 천민들의 전을 통해 지배계층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연암의 여항인들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 태도를 보다 심화시키고 동류적 시각에서 입

전한 인물로는 이옥이 있다. 그는 여향인들을 독립적 사회집단으로 보며 그들의 특이한 행동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했다.<sup>16)</sup>

19세기 편찬된 3대 인물전기집으로는 『호산외기(壺山外記)』(1844),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1862), 『희조질사(熙朝軼事)』(1862)가 있다. 『호산외기』는 조희룡이 『해동외사』의 본을 받아서 지은 인물전집으로, 총 39항목 42명의 효자, 아전, 역관, 예인, 시인, 책 장수 등을 입전하였다. 그리고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에는 14항목 287명의 방대한 인물전이 실려 있는데, 여기 수록된 작품 모두가 유재건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고, 이미 지어진 전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것이 대부분이다. 『호산외기』에 비하여 어느 정도 야담화, 기사화가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이 역시 넓은 의미의 전기집임에는 틀림없다. 이경민(李慶民)의 『희조질사』는 85명의 인물들이 입전되어 있으나 자신이 지은 것은 없고 모두 남의 글로만 엮였으며 전 양식에서 벗어난 것도 상당하다. 그러나 이 역시 당대 인물전의 변용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전기집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본고에서는 교수·학습 방안과 관련하여 고전 전기문학 작품 가운데, 조선 후기 작가들의 인물전을 중심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인물을 입전한 작품이나, 박지원이나 이옥 등 조선 후기 문인의 인물전 작품 가운데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몇몇 작품을 선별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구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다.

16) 김정일, 「조선후기 여향인물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21집, 2002.

17) 김보라, 「여향인물전을 활용한 전기문학 교육 방안」,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 Ⅲ.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의 교육적 의미와 가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방향과 추구하는 바를 올바르게 읽어 내기 위해서는 이전의 교육을 토대로 어떤 점을 차별화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비로소 현행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현재의 국어과 교육이 있기 까지 국어과 교육 과정은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어과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모색하게 될 고전 전기문학을 쓰기 영역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인 7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국어』와 심화 과목인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 전기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떠한 학습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고전 전기 관련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1.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천

국가 수준에서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지식의 변화, 사회 여건의 변화, 교육 이론의 발전, 현존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 등에 의하여, 그리고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천해 왔다.<sup>18)</sup> 다음은 해방 직후의 교수요목기부

더 현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7차까지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sup>19)</sup>

시기	구성 방향	국어과 영역 구분	교과서	특징
교수요목기 (1946-1955)	교과중심 교육과정	읽기 말하기 짓기 쓰기 문법 국문학사	중등국어(상 중하) 52년 부터 고등국 어 상중하로 발행	교육과정의 구성이념이나 뚜렷한 방향 없음
제1차 교육과정 (1955-1963)	경험중심 교육과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고 등 국 어 (1,2,3), 문 법, 작문, 고전, 국문 학사	앞 시기의 ‘교수 요목’ 의 틀을 유지하여 초창기 의 모습에 머물
제2차 교육과정 (1963-1973)			고 등 국 어, 문법, 작문, 고전, 국문 학사, 한문	
제3차 교육과정 (1973-1981)			고 등 국 어, 문법, 작문, 고 전 (국 어 사, 국문학 사 포함)	언어 사용 기능 신장과 함께 가치관 교육을 강조 했는데, 이러한 특징은 ‘제재 선정의 기준’에 잘 드러남
제4차 교육과정 (1981-1987)	학문중심 교육과정	표현·이해 언어 문학	고 등 국 어 (1,2,3), 작 문, 현대문, 고전, 문법	국어 교과목의 특성 명료화, 언어 기능 신장 강화, 학 습 내용의 적정화를 개정 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내용 영역을 ‘표현·이

18)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 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19)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pp 23~45 참고.

				해’, ‘언어’, ‘문학’의 셋으로 구분
제5차 교육과정 (1987-1995)	인간중심 교육과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	고 등 국 어 (상,하), 문 학, 작문, 문법	기본 방향의 하나로 ‘수업에서 지식 또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 한다는 방향 제시 이전 교육과정에서 ‘표현·이해’로 통합되었던 것이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로 분화됨
제6차 교육과정 (1995-2002)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제5차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기능’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연습과 훈련시키는 것에 치우친 것을 시정하여 ‘원리’ 쪽을 보완 ‘직접 교수법’을 권장하여 학생들의 활동 이전에 교사의 원리 설명과 시범 단계 강화
제7차 교육과정 (2000-201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국어, 국어 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초·중·고등학교 과정으로 분리되었던 교육과정을 1학년에서 10학년에 이르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설정 ‘심화·보충형’, ‘선택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채택
개정 7차 교육과정 (2009-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국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매체 언어	언어 활동의 구체적인 맥락을 강조하고 담화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 「매체언어」 과목 신설 국가 수준에서 학교 및 교사 수준의 수준별 학습으로 전환

국어과 교육은 해방 직후 1946년 미군청청 학무군에서 고시한 학교 교육의 지침을 위한 ‘교수요목’이 시행된 것을 시작으로, 정부 수립 이후 일곱 차례 바뀌어오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국어과 교육에서 중심 영역은 ‘읽기’였다. 제 3차 교육과정기까지만 해도 국어 교과서는 읽기 중심 교과서였고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은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읽기에 묻어 가르쳐지거나 말거나였다. 이러한 기존의 국어 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5차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교육의 목표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임을 분명히 밝히고,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도 균형적인 언어 기능의 교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역별로 단원을 구성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5, 6차 교육과정하에서도 국어 교과서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단원이 있어도 읽기 학습 진도가 늦어지면 학습되지 않는 단원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sup>20)</sup> 그리고 더불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언어 활동 영역을 나누어 각각의 하위 기능들을 분절적으로 제시하고 가르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교육적 효과를 다시 생각해보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논의에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언어 기능은 인지 과정이나 전달 매체에서 각기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어 활동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통합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국어 교과 내에서 영역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읽기와 쓰기(또는 독서와 작문)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어 온 편이다. 말하기와 듣기는 전달 매체와 상황 맥락의 공유로 인해 통합 지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았으며, 교재의 구성이나 수업에서 이미 통합적으로 운

20) 한철우, 「국어교육 50년, 한 지붕 세 가족의 삶과 갈등」,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2004, p502.

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읽기와 쓰기는 반대되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 이후로 읽기와 쓰기의 관계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점차 늘어났고, 프로토콜 분석<sup>21)</sup> 등을 통하여 글을 읽거나 쓰는 과정 동안에 독자와 필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읽기와 쓰기는 유사한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는 상호보완적인 과정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했다. 읽기와 쓰기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주로 읽기와 쓰기의 인지 과정상의 유사성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이해와 표현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읽기와 쓰기를 서로 상반된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 구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쓰기 지도에서는 읽기에 대한 강조로, 읽기 지도에서는 쓰기에 대한 강조로 반영되었다.<sup>22)</sup>

하지만 각 영역의 통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합 교육의 구성은 어떤 단계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통합 교육의 시기와 진행 방식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해한 것이나 감상을 글로 써보도록 한다고 해서 읽기와 쓰기의 영역 통합 지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영역간의 통합이라는 것은 교수·학습 단계에서 즉 수업에서 언어활동을 연계하여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통합 대상 영역의 교육 내용 특성과 공통점에 기인해야 한다고 본다.

21) 글쓴이나 읽는 이가 글을 쓰거나 읽을 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모두 소리내어 말해 보게 한 후에 이 자료(프로토콜)을 분석함으로써 글쓴이나 읽는 이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인지 행위를 파악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 방법은 읽기나 쓰기 연구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요즘에는 읽기나 쓰기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언어 행위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알아보는 데 적절하다.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I) - 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22) 김정자,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를 위한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문교육』 제6집, 2008, p254.

그렇다면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통합 지도와 관련하여 어떻게 언급하고 있을까. 교수·학습의 ‘방법’ 항의 통합 지도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3)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안을 계획한다.

가) 각 영역에서 해당 영역의 고유성이 반영되어 있는 학습 요소와 통합이 가능한 학습 요소를 구분하여 지도하되,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 국어 표현과 이해의 원리와 과정을 고려하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합하고, 듣기와 읽기를 통합한다.

(2) 국어 활동에서 사용되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듣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다.

(3) 문법이나 문학과 관련된 담화 또는 글과 문학 작품을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문법 및 문학 영역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통합한다.

나) 동일 영역의 내용 요소 중,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합한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한다.

다) 매체 관련 내용 요소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과의 통합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라) 여러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하기 위해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교육 내용과 학습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한다.

(1)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조직한다.

(2)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3)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4) 다양한 담화 또는 글을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통합하여 조직한다.

4)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 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둘 이상의 영역을 통합하여 지도할 때에는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나) 영역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통합적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 학습자가 한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른 영역에 적용하는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라) 학습 요소의 통합 취지에 알맞은 방법으로 교수·학습을 전개한다.

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영역 간, 영역 내 통합 지도를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통합적 지도가 용이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과서의 경우 통합 지도를 위한 단원들이 각기 다른 단원에 배치되고, 또 다른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영역별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보다는 같은 단원이나 텍스트 내에서 각 영역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이때는 영역별 균형을 적절히 고려하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단원이나 텍스트뿐만 아니라 성취기준과 구체적인 내용 요소가 통합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 좀 더 실천적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며, 실제 교실 수업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교수 방안으로 모색하게 될 고전 전기 문학과 관련하여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작품들과 학습요소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해와 표현, 읽기와 쓰기, 감상과 창작의 측면이 적절히 고려되어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2. 고전 전기문학(傳記文學) 관련 교육 현황과 문제

현재 국어과 내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 전기 작품은 『문학』 교과서에 실린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전기 작품의 경우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인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총 5편이 실려 있지만<sup>23)</sup>, 고전 작품의 경우에는 한 편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출판된 『문학』 교과서는 총 18종으로 이 가운데 고전 전기문학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교과서는 모두 15종이다. 각각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전기 작품과 해당 단원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전기 작품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대부분의 작품이 읽기 영역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쓰기 영역과도 관련된 단원은 이중섭의 전기문을 다루고 있는 중1-2의 1단원이다. 그러나 그것도 읽기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전기문을 써보는 활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쉽다는데 문제가 있다.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고 가느냐는 순전히 지도 교사에게 달린 문제가 되고 만다.

입전 인물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해보면 이중섭, 한하운, 이육사, 한용운, 윤동주는 모두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를 살다간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중섭을 제외한 나머지 네 인물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시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물론, 한하운의 경우는 그가 살았던 시대와 연관되기 보다는 그의 병과 관련하여 개인사적인 것들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시대와 분야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보다 폭 넓은 시대와 분야를 반영한 인물들의 전기가 다루어져 학습자로서 하여금 다양한 세계를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가 꼭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들의 삶을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 주변의 평범한 인물을 대상으로 쓴 전기나 자신의 삶을 다룬 자서전을 제시해 준다면 전기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학년·학기	단원명·수록작품	학습 목표
중 1-2	- 읽기영역 - 1. 능동적으로 읽기 (1) 화가 이중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동적인 태도로 글을 읽을 수 있다.</li> <li>• 글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쓸 수 있다.</li> </ul>
중 2-2	-문학영역- 1. 작가와 작품 <보충·심화> 한하운의 자서전 일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삶이 작품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됨을 안다.</li> <li>• 작품 속에 반영된 작가의 생각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li> </ul>
중 3-1	-읽기 영역- 4. 읽기와 토의 (1) 지사의 길, 시인의 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을 읽고, 글에 관련된 사항을 토의할 수 있다.</li> <li>• 토의를 통해 글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li> </ul>
중 3-2	-읽기 영역- 5. 글과 표현 (2) 만해 한용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에 나타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찾아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표현 방법이 주는 효과를 이해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li> </ul>
고등 (상)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보충학습> 정병욱의 ‘잊지 못할 윤동주’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읽는 태도를 지닌다.</li> <li>• 문학 작품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을 인식한다.</li> </ul>

24) 출판사 옆에 \* 표시는 해당 작품이 교과서에서 안에서 본문 작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

종류	작품명	출전	출판사	해당 단원명
열전	도미전	삼국사기	금성(上)	IV.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소설의 내용과 주제 <보충·심화 활동>
			두산(上)	III. 문학과 가치 3. 문학의 소통과 문화 체험 확충하기(원리학습 - 익히기 활동)
			*24)태성(下)	IX. 한국 문학의 흐름(1) 1. 고조선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문학 (2) 도미의 처
	온달전	삼국사기	*민중서림(下)	I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2. 고조선 ~ 삼국의 문학 (3) 온달전
사전	광문자전	방경각외전	*금성(上)	IV.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3. 소설의 내용과 주제 (1)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방경각외전	*상문(下)	V. 문학과 삶 1. 개인의 삶과 문학 (2) 삶의 의미
	민옹전	방경각외전	금성(下)	I. 문학의 가치화와 생활화 2. 문학 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학습활동>
가전	국순전	동문선	문원각(下)	II. 한국문학의 흐름 2. 고려 시대의 문학 (4) 국선생전 - 관련 학습활동
			*교학사(김)(下)	VIII. 한국 고전 문학의 흐름 2. 구어와 문어의 이원화 (2) 국순전
			*대환(下)	V.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2. 한국 문학의 흐름과 양상

			(2) 고려 시대의 문학 ② 국순전
		*청문각(下)	II. 한국 문학의 흐름과 전통 2. 고려 시대의 문학 (3) 국순전
공방전	동문선	*천재(下)	IV. 한국 문학의 특징과 흐름(1) <보충·심화 활동>
		두산(下)	V. 문화의 변동과 문학의 대응 1. 한국 문학의 모색과 정립 (2) 집단의 이념과 개인의 서정 ③ 화왕계 - 관련 학습 활동
		블랙박스 (下)	VIII. 한국 문학의 특징과 흐름 대단원 마무리 학습활동
		*케이스(下)	V. 문화의 흐름과 문학의 상상 2. 한문학의 발달과 시가 문학의 다양화 (3) 공방전
		*지학사(권) (下)	I. 한국 문학의 특징과 흐름 (2) 한글 창제 이전 문학의 갈래 별 전개 ⑥ 공방전
		*지학사(박) (下)	II. 한국 문학의 흐름(1) 2. 고려 시대의 문학 (3) 공방전
		대한(下)	V.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2. 한국 문학의 흐름과 상상 2-4 조선 후기의 문학 단원 마무리에서 홍길동전과 함 께 제시
		태성(下)	IX. 한국 문학의 흐름(1) 대단원 보충·심화
		*형설(上)	IV. 주제별 수용과 창작 6. 웃음과 비판 정신

				(2) 공방전
	국선생전	동문선	금성(上)	IV. 서사 문학의 수용과 창작 <보충·심화 활동>
			*문원각(下)	II. 한국문학의 흐름 2. 고려 시대의 문학 (4) 국선생전
			*중양(下)	III. 한국 문학의 흐름 3. 중세 후기의 문화와 문학 (1) 국선생전
			지학사(권) (下)	I.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1. 한글 창제 이전의 문학 (2) 한글 창제 이전 문학의 갈래 별 전개
			대한(下)	V.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2. 한국 문학의 흐름과 양상 (2) 고려 시대의 문학 ② 국순전 - 관련 학습활동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반면 인물 관련 전기를 다룬 교과서는 몇 군데 되지 않는다. 가전의 경우에는 주로 문학사 흐름과 관련한 단원에서 고려시대의 특징적 문학 양식으로서 다루고 있다. 고전 전기문학 작품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과연 가전 문학이 차지하는 작품 수나 문학적 위상에 합당한 반영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어떠한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서사문학의 발전 단계에서 소설이 등장하기 전 단계에 나타난 의인체 소설 양식의 교훈성을 지닌 문학’이라는 문학사적 지식과 작품 줄거리, 작가 등의 단편적인 지식들을 습득하는 정도의 학습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

미한다. 표시가 없는 것은 해당 작품이 학습활동이나 보충·심화 활동으로 제시된 경우이다.

다.

사물을 의인화한 것이 아닌, 인물의 삶과 관련한 전기문학 작품으로는 『삼국사기』 열전의 작품 두 편과 박지원의 『방경각외전』에 실린 인물전 세 편이다. 이 가운데 학습활동이나 보충·심화 활동이 아닌 소단원 작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품은 「도미전」, 「온달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네 작품이다.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는 단원들을 살펴보면 수용과 창작, 문학의 소통, 한국 문학의 흐름, 문학과 삶 등으로 무척이나 다양하다. 이것은 인물의 삶을 다룬 고전 전기문학이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 걸쳐 학습 요소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이 실제 교과서에서는 어떠한 학습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을까. 각각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활동은 다음과 같다.

작품명	출판사	관련 학습활동
도미전	금성(上)	다음 두 편의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하여 보자. (박종화, 『아랑의 정조』와 함께 제시) (1) 두 작품은 동일한 줄거리를 가지는 서사 문학이지만, 하위 갈래는 다르다. 서사 문학의 발전 단계에서 두 작품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여 보자. (2) (나)는 (가)의 어느 부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나)처럼 표현해서 얻어지는 문학적 효과가 무엇인지 말하여 보자.
	두산(上)	다음의 설화는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전하여져 우리 민족이 오래 향유하는 문화가 되었다. 이런 설화 문학이 국어 문화의 일부로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폭넓게 생각해 보자.
	*태성(下)	<b>【내용 학습】</b> 1. 도미의 아내가 왕의 수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2. 이 작품을 보면 여성이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장

		<p>면이 있다. 본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자.</p> <p><b>【적용 학습】</b></p> <p>3. 이 작품처럼 ‘관탈민녀형’ 설화로 분류될 수 있는 고전 소설 작품을 찾아보자.</p> <p><b>【토의·토론】</b></p> <p>4. 오늘날의 경우에도 관탈민녀형 설화에 속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각자의 견해를 나누어 보자.</p>
온달전	*민중서림 (下)	<p><b>【수용】</b> 이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p> <p>1. 평강 공주가 상부 고씨에게 시집가라는 평강왕의 명령을 거절한 이유를 말해 보자. 그것을 통해 평강 공주의 성격을 짐작해 보자.</p> <p>2. 온달의 노모가 평강 공주에게 온달의 배필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를 찾아보자. 이러한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노모는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말해보자.</p> <p>3. 온달이 평강 공주에게 취한 행동과 말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p> <p>4. 평강왕이 온달을 인정하고 쫓겨난 평강 공주까지 다시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말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를 통해 전기의 서술상 특징을 말해 보자.</p> <p><b>【적용】</b> 이 작품을 아래의 설화와 비교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삼국유사』, 「무왕武王」조 일부 제시)</p> <p>1.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공통점을 비교하여 말해 보자. (평강 공주와 선화공주, 온달과 서동, 평강왕과 진평왕)</p> <p>2. 두 작품의 여주인공의 성격이 갖는 긍정적 면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p> <p>3. 이러한 이야기 유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을지 말해보자.</p>
광문자전	*금성(上)	<p>1. 다음의 일화들을 종합하여 광문의 성격을 말하여 보자.</p> <p>2. 다음 두 글을 읽고 광문의 신분이 (나)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지 말하여 보자 (제시된 다른 글은 유충렬전 일부)</p> <p>3. 광문을 통해서 작가가 제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인물형은 무엇이었는지 말하여 보자.</p> <p>4. 「광문자전」에서 다음 글에 나오는 ‘변씨(卞氏)’와 역할이 유사한 인물을 찾고, 그들이 어떤 점에서 유</p>

		사한지 말하여 보자.
예덕선생전	*상문(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예덕선생전&gt;에서 인물들이 지닌 가치관과 그 근거를 드러내는 부분을 본문에서 찾아보자.</li> <li>• 오늘날에도 ‘업 행수’를 대하는 ‘자목’과 같은 사람이 있다. ‘자목’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을 반성해보자.</li> </ul>
민옹전	금성(下)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암은 어떤 병이 들었는지 말하여 보자.</li> <li>(2) 이런 병이 든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지 생각하여 보자.</li> <li>(3) 이야기 속의 민옹을 통해서 사물이나 대상을 남과 다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하여 보자.</li> </ol>

「도미전」은 모두 3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관련 학습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설화문학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성(上)의 경우 도미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소설화 한 박종화의 「아랑의 정조」(1936, 『문장』)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고 서사 문학의 발전 단계에서 설화와 소설의 관계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두산(上) 역시, ‘Ⅲ. 문학과 가치’ 단원에서 ‘우리 문학은 국어 문화의 일부이다’의 익히기 활동으로서 설화가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와 문학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도미전」을 싣고 있는 세 교과서 가운데 태성(下)만은 교과서의 소단원으로 설정하여 다루고 있는데, 이야기의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열너로서 도미의 행동을 당시의 사회문화적 가치와 연관지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으며, ‘관탈민녀형’ 설화의 측면에서도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온달전」을 싣고 있는 민중서림(下)은 작품 속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짐작해보고, 상황 속에서 그러한 말과 행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와 관련하여 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 비교와 이러한 이야기 유형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흥미를 일으켰을지에 대해서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짧은 형식의 전기로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서도 문제로 제시하여 『삼국사기』의 「열전」에 실린 전기문학으로서의 학습도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 「민옹전」은 모두 연암 박지원의 작품으로 『방경각외전』에 전하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의 경우 각각 한 종의 교과서에서 한 작품씩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박지원의 작품은 「양반전」이나 「호질」같은 작품이 소설문학 쪽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타 산문문학들은 다양하게 다루지 못하는 듯하였다. 산문 작품의 경우 운문에 비해 지면 할당이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고전과 현대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추려다 보면 문학사적 가치와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된다.

세 인물전 작품의 관련 학습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가치관과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가 많은데, 이는 내용 학습과 작가의 창작 의도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러한 새로운 인물 유형을 통해 학습자는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나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러한 학습 활동들이 모두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학습자의 깊이 있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자극하기는 어

려운 것이 사실이다.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적극적인 대화나 질문이 오고 가지 않는 이상 학습자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게 스스로 생각해보려 하지 않고, 답안을 취하는 데만 급급할 수 있다. 이것은 위에 제시된 작품들의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이다. 또한 전기문학과 관련한 교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학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기도 하다.

### 3.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에 있어서 전기문학(傳記文學)의 가치

앞서 살펴보았듯이 18종의 『문학』 교과서 가운데 총 5편의 고전 전기문학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데만 치중되어 있어,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현재 ‘문학’ 과목의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 < 7차 ‘문학’ 과목 교육 과정 목표 >

문학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길러,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 문화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

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와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이해한다.

나. 작품의 수용과 창작 활동을 함으로써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른다.

다.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라.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읽기와 쓰기 혹은 수용과 창작을 통합시켜 문학 작품을 학습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것은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 프로그램 존재하고, 또 적용 가능 할 때의 일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만으로 제대로 된 통합 교육을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기에 앞으로 더욱 활발히 논의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 작품을 독서물로 여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쓰기로 연결 시켜 학습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모든 언어 사용 기능들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읽기와 쓰기는 비슷한 사고나 기능, 전략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지도를 하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중복되는 요소들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학습자는 독자의 입장이 아닌, 필자의 입장에서 글을 이해하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와 관련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고전 전기문학의 경우 다른 산문 장르의 글쓰기 양식에 비해 간결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쓰기 교육으로의 연계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며, 교육적 효과 또한 다양하다. 우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읽고 이해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써봄으로써 타인의 삶을 자기화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생까지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와 성공을 추구하며 달리다보면 자칫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가치관을 지닌 인간으로 전락하기 쉬운데, 전기문학은 타인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

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한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토록 정의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전기문학에서는 인물의 성품과 가치관, 삶의 태도 등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화나 사건 등을 선택하고 일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쓰기에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전기문학을 쓰기 영역에서 접근함으로써 그와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전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특히 다른 사람의 일생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글을 써내려가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미숙한 필자일수록 글쓰기 전 단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전기 쓰기를 통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기는 단순히 읽고 감상하고 이해하는 자료에서 더 나아가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적절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주로 수동적인 감상의 측면에서만 학습되었던 고전 전기문학, 그 가운데 조선 후기 인물전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가 보다 깊이 있게 작품을 들여다보고, 학습자 스스로의 표현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 IV.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 고전 인물전 교육 방안

#### 1. 읽기와 쓰기의 장르적 연계를 위한 『작문』 교과서 내 전기 쓰기 탐색

오늘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속에서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의미있게 재구성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따라서 글쓰기 교육은 이전의 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소화하여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서 요즘은 더 이상 정형화된 글쓰기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범교과적 글쓰기’의 관점에서, 어느 한 영역, 한 교과에 갇힌 글쓰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영역을 끌어와 활용할 것을 역설한다. 하물며 국어과 영역 안에서야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고전과 현대, 읽기와 쓰기, 문학과 비문학을 구분 짓고 배타적 영역을 설정하기보다는 함께 아우르는 가운데 각기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소통의 문을 마련하고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물전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고전 작품들은 읽기와 문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읽고 감상하는 독서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학 작품을 보다 온전히 감상하고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쓰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것은 교육과정 상에서 문학 과목이 추구하는 바이며,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 작품과 관련한 교육은 여전히 읽기와 감상에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국어과 영역 가운데 쓰기를 가장 어렵게 여기고, 심지어 두려움도 느낀다. 이것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사회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쓰기를 배제한 언어생활은 온전한 언어생활이 될 수 없다. 쓰기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머릿속의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보다 긴밀하게 엮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수준의 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읽어내는 것과 글로 써내는 것은 분명 다른 수준의 문제이다. 네 영역 가운데 쓰기는 가장 고차원적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고 관련하여 감상문을 쓰는 것을 두고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냥 읽기와 쓰기가 연달아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영역의 통합은 본질적으로 통합 대상 영역의 교육 내용과 특성의 공통점에 기인한다. 공통된 학습 요소를 영역 간의 연결고리로 삼고, 이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고전 인물전 학습의 경우 어떤 점에서 읽기와 쓰기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고전 인물전이 인물의 생애를 다룬 전기문학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기 쓰기 활동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교육과정 상에서 전기 쓰기는 주로 작문 과목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의 ‘작문의 실제’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설득을 위한 글쓰기’, ‘정서표현을 위한 글쓰기’, ‘친교를 위한 글쓰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글쓰기’ 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글쓰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실용적 글쓰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전기 쓰기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하위 항목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출판된 작문 교과서는 총 13종으로, 이들 교과서 가운데 전기문을 쓰기 교육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대한교과서, 두산, 신원문화사, 아침나라, 중앙교육, 지학사, 청문각, 학연사로 모두 9종이다. 아래에서는 주로 어떠한 학습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또 제시된 텍스트 가운데 고전 전기문학 작품은 몇 작품이나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출판사별로 ‘전기 쓰기’ 관련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출판사별 『작문』 교과서의 ‘전기 쓰기’ 관련 학습 내용 >

출판사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금성출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특성과 구성 원리를 이해한다.</li> <li>• 설명, 묘사, 서사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기문을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타임 캡슐’ 이란 제목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자서전을 만들어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기 집안 소개 (2) 부모님 이야기 : 인터뷰</li> <li>(3) 성장 과정의 특징과 일화 (4) 친구와의 인터뷰</li> <li>(5) 나의 이야기</li> </ul> </li> <li>• 어떤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다. 모둠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써 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안 소개 (2)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li> </ul> </li> </ul>

		<p>(3) 초등학교 시절 (4) 중·고등학교 시절  (5) 청년기(20~30세) (6) 사회 생활  (7) 배우자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8) 현재 (9) 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글을 참조하여 존경하는 인물의 전기문을 써보자.  (문화관광부 선정, ‘이 달의 문화인물’ 이중섭 (1999. 1))</li> <li>• 다음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수기를 써 보자.  (학습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기타 활동)</li> </ul>
대한 교과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특성과 의의를 안다.</li> <li>• 다양한 전기문을 쓸 수 있다.</li> <li>• 전기문 쓰기의 유의점을 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은 자서전의 일부 내용이다.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자서전의 집필 목적을 말해 보자.</li> <li>(2) 이 글에 첨가해야 할 내용을 알아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은 겹재 정선의 전기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정선의 전기문을 써 보자.</li> </ul> <p>- 유의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겹재 정선의 생애 중, 그의 작품 창작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li> <li>(2) 자신의 감상을 배제할 것.</li> </ol>
두산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과 감동을 정보로 전달하려는 글의 유의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글로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전기를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김용운, ‘수학의 영웅들’ 의 ‘라마누잔’ 편에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전기에서 상상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썼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말해 보자.</li> <li>(2) 이 전기가 사전식 정보와 다른 점을 말해 보자.</li> <li>(3)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가운데 한 분을 정해 다음 &lt;조건&gt;과 같이 간략한 전기를 써 보자.</li> </ol>
신원문화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특징을 알고 형식에 맞게 글을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전기문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보자.  (‘정약용/다산 산문 선집’ 박석무·정해림 편역/ ‘현대 실학사’ 에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간 순서에 따라 정약용의 생애를 정리해 보자.</li> <li>(2) 위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문의 특징과 구성 방법에 대해 말해 보자.</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서전을 써 보자.</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서전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자.</li> <li>(2) 정리한 내용을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 또는 시간 순서</li> </ol>

		로 구성해 써보자.
아 침 나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특징을 안다.</li> <li>• 전기문 쓰는 방법을 익힌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에 대한 자서전을 쓰기 위한 약력을 조사해 보자.</li> <li>• 다음 두 글을 읽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자. (염무웅의 ‘김수영과 신동엽’ 일부/ 김용택의 ‘섬진강 이야기1’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인물 선정 면에서</li> <li>(나) 집필 방법 면에서</li> <li>(다) 글쓴이의 심리적 태도 면에서</li> </ul> </li> <li>• 다음 전기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신용하, ‘박은식의 생애와 업적’ 중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이 글이 소설과 다른 점을 정리해 보자</li> <li>(나)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 보자.</li> </ul> </li> <li>• 다음 자료 외에도 모둠별로 더 조사하여 ‘윤봉길 의사’의 전기문을 써 보자.</li> </ul>
중 상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 쓰기의 원리와 방법을 알고 글을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을 쓰기 위한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재나 과거의 인물 중,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li> <li>2. 위에서 선정한 인물의 주요 업적을 정리해 보자.</li> <li>3. 다음 &lt;보기&gt;의 글과 같이, 존경하는 인물의 성품이나 인격을 잘 드러내 주는 일화(逸話)나 말 등을 찾아 정리해 보자.</li> <li>4. 위에서 정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편의 전기문을 써 보자.</li> </ol> </li> </ul>
지 학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특성을 알고 글을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전기문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자 (이상에 대한 전기문 중 일부 제시)</li> <li>• 다음 제시된 글을 토대로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자.</li> </ul>
청 문 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성격과 유형, 쓰는 방법을 안다.</li> <li>•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전기문을 쓸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글은 율곡 이이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 쓴 전기문의 일부분이다.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보자.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의 일부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전기문에서, 율곡은 일화(逸話)와 시를 통하여 어머니 신씨의 어떠한 성품을 나타내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자.</li> <li>(2) 각자 어머니의 성품을 생각해 보자.</li> <li>(3) 앞의 (2)번 활동에서 생각한 어머니의 성품을 드러낼</li> </ol> </li> </ul>

		<p>수 있는 일화를 간단히 적어보자.</p> <p>(4) 앞의 (2), (3)번 활동을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전기문 형식의 글을 써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글을 읽고, 전기문 쓰기와 관련하여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조희룡의 ‘호산외사’ 중 천수경에 대한 인물전 일부)</li> </ul> <p>(1) 이 글은 열전 형식의 글이다. 열전의 특성을 알아보고, 열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자.</p> <p>(2) 반 친구들과 다섯 명씩 모둠을 구성하여, 각 친구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열전 형식의 글을 써 보고, 각자 돌려가면서 읽어 보자.</p>
학 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문의 종류와 특성을 안다.</li> <li>• 글쓰기의 절차와 전기문의 특성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전기문을 쓴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글을 읽고, 이 글이 전기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점을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 분석해보자. (김구의 ‘백범일지’ 중 일부)</li> </ul> <p>(1) 이 글에서 지난 일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부분을 찾아보자.</p> <p>(2) 이 글에서 과거를 미화하지 않고 글쓴이의 심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부분을 찾아보자.</p> <p>(3) 이 글에 나타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정리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읽었거나 알고 있는 회고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저자와 책 이름을 적어 보자.</li> <li>• 그 동안 읽었던 전기문 중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친구들에게 추천하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li> <li>• 다음 글을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박혜나, ‘서울에서 하버드까지’ 중 일부)</li> </ul> <p>(1) 이 글로 보다, 이 책은 어떤 성격의 글인지 생각해 보자.</p> <p>(2) 여러분이 2~3년 내에 이와 같은 종류의 책을 쓴다면, 그 책의 제목을 무엇으로 하고 싶은지 발표해 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글을 읽고, 자기 과거의 한 부분을 생동감 있게 써 보자. (김형석, ‘부자가 된 이야기’ 중 일부)</li> <li>• 과학자 소설가, 만화가, 영화 감독, 연예인, 운동 선수 중에서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의 전기문을 써 보자.</li> </ul>

25) 다른 교과서와 달리 ‘전기문 쓰기’라는 소제목으로 항목화되어 있지 않고, ‘(4) 체험과 감동을 정보로 전달하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전기에 관한 학습 요소를 다루고 있었다. 전기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정보의 나열과 전달에 그 목적이 있지 않고, 인물의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전기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먼저 학습한 후에 이어서 직접 전기를 써보는 활동을 하도록 제시함으로써 지식적 차원의 원리가 실제적 차원의 쓰기 활동에 적용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전기가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삶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보적 성격의 글이라는 것과, 넓은 의미에는 자신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 수기, 회고록 등도 포함된다는 것이 교과서마다 공통되는 일반적 설명이다. 전기 쓰기를 위한 실제적 활동으로 제시된 과제의 양상을 살펴보면 자서전 쓰기,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물의 전기 쓰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전기 쓰기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기 쓰기를 위한 실제적 활동을 구성한 학습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교과서마다 그 시각과 강조점이 조금씩 상이했다. 금성은 자서전과 화가 이중섭의 전기 쓰기를 학습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출생부터 현재까지를 후자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전기를 쓰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교과서에서는 전기 쓰기 방법과 관련하여 ‘인물의 출생→ 시대적 배경, 가정환경, 가족 관계 → 어린 시절의 일화, 성격 형성 과정, 교육 배경, 결혼, 여행 → 인생관, 인류에 끼친 공적, 후손에 준 교훈, 인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의 연대기적 시대순으로 조직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정형화된 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전기 쓰기가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겠으나, 그보다는 전기의 다양한 형식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대한교과서는 겸재 정선의 전기문을 써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생애 가운데 그의 창작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쓰도록 한 것

---

체험과 감동을 담겨야 함을 중요하게 여겨 설정한 제목으로 보인다.

은 전기가 인물의 특성과 삶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하고, 초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감상을 배제한 글쓰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칫 사실만을 나열해나가는 딱딱하고 건조한 글쓰기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두산은 ‘체험과 감동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는 소제목 아래 전기 쓰기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전기를 ‘정보 전달하는 글’의 바로 하위 항목으로 다루기에는 정보성 못지않게, 문학적 요소 역시 중요한 장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 작문은 실용적 글쓰기와 관련한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다른 교과서에 비해 간단한 언급과 활동만을 제시하고 있다.

신원문화사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의 생애 정리와 자서전 쓰기를 제시하고 있다. 시간적 순서에 따른 생애 정리는 주어진 자료가 이미 시간적 순서에 따른 서술이기 때문에 그다지 학습에 유익한 활동이라는 여겨지지 않는다.

아침나라는 자서전을 자신이 경험한 전 생애를 담는 것이라고 설명해 놓고, 학습활동에서 ‘학생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에 대한 자서전을 쓰기 위한 약력을 조사해 보자.’ 라고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두 전기를 ‘인물 선정, 집필 방법, 글쓴이의 심리적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해 보도록 하는 활동은 다양한 형식의 전기 쓰기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중앙교육은 선정한 인물의 주요 업적 정리와 함께 인물의 성품이나 인격을 잘 드러내 주는 일화나 말 등을 찾아 정리해보도록 함으로써 글쓰기에 미숙한 학습자의 경우 전기 쓰기가 생애의 단순한 나

열로 흐르기 쉽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두 쪽이 채 되지 않는 교과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전기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학습은 어려워 보인다.

지학사는 인물의 업적이나 관련된 사건들을 연대별로 나열하는 식의 전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단조롭고 지루해지기 쉬우므로 인상 깊은 사건이나 업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배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만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각은 학습 목표를 다양한 형태의 전기문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이이가 어머니 신사임당의 생을 담아낸 글과 조희룡의 『호산외사』 중에서 「천수경전」을 지문으로 제시한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이의 글은 어머니와 관련한 일화와 사친시(思親詩)를 통해, 조희룡이 쓴 전 역시 천수경이라는 인물의 다섯 아들 작명(作名)과 관련하여 짙막한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인물들의 성품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전 문인의 작품을 활용한 전기 쓰기 학습이라는 점과 생애 나열적 전기 쓰기에서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본 고에서 추구하는 전기 쓰기와도 통하는 면이 있다.

학연사는 구체적 글쓰기의 절차에 따른 전기 쓰기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정하기, 글감 모으기, 글의 설계도 만들기, 내용 작성하기, 재고 및 조정의 절차에 따르는 전기 쓰기 활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기 과거의 한 부분을 생동감 있게 써 보도록 함으로써 전기의 특성도 어느 정도 고려한 활동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출판사별 작문 교과서마다 보여주는 학습 활동의 차이는 크게, 전기가 지닌 특성 가운데 사실성과 정보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강조점을 두느냐, 아니면 정보를 재배열·초점화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 하는 것에도 전자만큼의 강조점을 두느냐의 문제로 보인다. 처음부터 후자 쪽의 글쓰기를 지향한다고 하여 학습자의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정보 나열 수준의 쓰기에 그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고등학교의 심화 과목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라면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정보를 재배열하고 어느 정도 문학적 형상화 까지도 고려한 전기 쓰기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작문』은 비문학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전 6차 교육과정에서는 작문 과목에 문학적 글쓰기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과목에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창작 활동으로 연결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수용적 차원의 학습이 아닌, 표현의 측면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 『문학』 교과서와 수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학과 비문학의 배타적 영역 설정과 분리 구도를 전제로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글쓰기를 딱딱하고 어려운 것으로 느끼게 할 수도 있다.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글을 쓰거나, 일기 혹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충분히 문학 차원의 글쓰기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특히 고전 문학의 경우 현대 문학에 비해 읽고 감상하는 차원의 수동적 교육으로 흐르기가 더욱 쉬운데, 이 역시도 문학 수용과 창작이라는 두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수많은 작품들이 고전 문학의 토대위에 장르를 넘나들며 현대적 의미에서 수용, 변용되고 있는

요즘, 화석화된 과거의 유물로서가 아니라 현재를 올바르게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전 작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인물의 생애를 다룬 인물전의 경우,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거나 다른 누군가의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이 보다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한 균형 잡힌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물전의 경우 다른 산문 장르의 글쓰기 양식에 비해 간결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여러 작품을 접하도록 하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머릿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표현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글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과 자연, 사회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쓰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인물전에서 작자가 인간과 그들을 둘러싼 세계에 보인 관심과 깊이 있는 관찰은 학습자의 글쓰기 동기 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자체는 짧지만, 고전 인물전이 지닌 문학적성과 전기문으로서의 완결성은 충분치 못한 수업 시수 속에서 감상과 창작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 2. 전기 쓰기 단계에 따른 작품의 수용과 활용 방안

과정 중심의 쓰기 이론에서는 글을 쓰는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에서부터 내용 생성·조직, 그리고 퇴고에 이르는 선형적인 구조로 이해한다. 이러한 글쓰기 과정은 대부분의 글쓰기에 모두 적용된다. 그

러나 이러한 과정을 숙지했다고 해서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 글 쓰는 목적과 상황에 맞는 글쓰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전기 쓰기 역시 인물의 삶을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다룰 것인지 끊임없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입전 인물의 생애를 담고 있는 방대하고 비체계적인 삶의 기록들 속에서 전기 쓰기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취사선택하고 결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기 쓰기는 단순히 있는 사실만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기 쓰기의 일반적 절차는 ‘1)계획하기→ 2)조직하기→ 3)표현하기→ 4)고쳐쓰기’의 단계로 설명된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입전 인물을 선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인물의 어떠한 면을 중심으로 하여 형상화 할 것인지 집필 방향을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인물, 사건, 배경, 평가의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선정하고 조직한다. 이를 바탕으로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사실적 요소와 상상적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여 실제 전기를 써나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인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썼는지, 부각된 인물의 면모를 진실되고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수정할 부분을 찾아 고쳐쓰게 된다.

이 밖에 전기문 쓰기의 일반적 절차를 6단계로 설정한 연구에서는 인물 선정→ 자료 수집→ 내용 요소 선정(인물의 총체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요소 선정)→ 내용 요소 배열→ 각 단락의 표현(사실-문학적 표현-평가의 순서를 고려하여 표현하기)→ 글 다듬기의 단계로 설명하기도 한다.<sup>26)</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기 쓰기의 절차에 따라 각 단계에서 고전 전

26) 박미정, 「전기 쓰기의 지도 요소 연구」,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2006.

기문학 작품을 읽고 감상한 후에 그와 관련하여 전기 쓰기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 학습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다.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현하도록 할 것이며, 학습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전기는 실제 인물과 사건을 바탕으로 작가가 자신의 관점과 표현력을 발휘하여 서술함으로써 문학과 비문학을 넘나들기 때문에 정보력 및 문학적 가치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없는 장르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실용적이고 비문학적 관점을 고집하지 않고 고전 작품을 활용하여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학적 전기 쓰기가 되도록 하겠다. 이것은 활동 중심의 문학관<sup>27)</sup>이라는 측면에서도 통하는 것이다. 문학을 위한 글쓰기냐, 글쓰기를 위한 문학이냐에 따라 어느 정도 비중이나 강조점은 차이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 목표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방안을 위한 구체적 작품으로는 조선 후기 인물전 작품 가운데 박지원의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과 「광문자전(廣文者傳)」, 남공철의 「최칠칠전(崔七七傳)」, 이옥의 「류광억전(柳光億傳)」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예덕선생전」과 「광문자전」은 현재 문학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으로,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외의 작품으로는 학습자가 흥미를 느끼며 읽을

27) 활동 중심의 문학관이란 문학을 설명하는 중점을 인간의 활동이라는 특성에 두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와 감상'이라는 말도 이해하는 수렴적 활동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표현 행위를 발산적 활동으로 인식함으로써 글쓰기를 강조하게 된다.

활동 중심이 문학 교육의 의의는 첫째, 문학 활동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 감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능력에 목표를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와 표현의 양면을 아우르는 균형적인 능력의 교육으로 발전하게 해준다. 셋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활동의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으로써 인간적 의의를 지니게 된다.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9, pp469~470).

수 있을 만한 인물전 가운데, 전기 쓰기와 관련하여 학습 요소를 구성하기에 좋은 작품으로 남공철의 「최칠칠전」, 이옥의 「류광역전」을 선정하였다.

### 1) 입전 인물 선정과 자료 수집

한 인물의 생애를 서술하는 데는 다양한 계기가 존재할 수 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친분에 의해 서술할 수도 있고, 입전 인물을 통해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서술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입전 인물은 작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 선정 과정은 생략하게 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작자는 주제 의식을 표현하기에 부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고민해야 한다. 입전 인물을 누구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전을 서술해 나가는 데 있어 서술 방향과 표현 양식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대표적 문인인 박지원(朴趾源)도 인물전을 남겼다. 조선 전기의 전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입전 인물의 계층이 확대되고 인물상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박지원의 경우도 최하층의 인물들까지 입전 대상으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 박지원이 전을 지은 동기에 대해 차남 박종채(朴宗采)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세상의 벗 사귀는 오로지 권세와 이익을 쫓았다. 그리하여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하는 세태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 세태를 미워하셨다. 그래서 아홉 편의 전을 지어 세태를 풍자하였는데, 그 속에는 왕왕 우스개 소리가 들어있다.<sup>28)</sup>

28)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희병 옮김, 돌베개, 1998.

위의 글은 박지원의 『방경각외전(放瓊閣外傳)』에 전하는 아홉 편  
의 작품과 관련한 언급으로, 『방경각외전』은 그의 작품 중 패관소  
품류(稗官小品類)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기 시작한 한문 단편과 그 특  
징을 같이하는 전(傳)들을 묶은 책이다. 그것과 관련하여 아들 박종  
채는 권세와 이익을 쫓아 벗을 사귀는 세태를 풍자하기 위함이라 하  
였다. 『방경각외전』에는 「양반전」, 「마장전」, 「예덕선생전」,  
「광문자전」 등이 포함되어 있다.<sup>29)</sup> 수록된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  
의 주인공들은 떠돌이 거지, 천인 역부, 몰락한 무반, 불우한 위항인,  
농부 등 이름 없는 하층민의 서민 군상으로, 당대 인간들의 삶의 현  
장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서민들의 건전한 삶을 긍정하고 타락한  
양반의 실상을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많은 학습자들이 ‘전기’  
라고 하면 위인이나 영웅들의 일생과 관련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  
향이 있는데, 전기가 꼭 위인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만을 다루지는 않  
으며 인물과 관련해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를 입전 대상으  
로 삼든 제한이 없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을 안의 똥거름을  
저내는 엄 행수나 종루의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던 광문이  
라는 인물을 입전 대상으로 삼은 박지원의 경우는 좋은 예가 된다.

박지원의 시정인들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 태도를 보다 심화시켜  
입전한 문인으로는 이옥(李玉)을 들 수 있다. 그의 전에 입전된 인물  
들을 살펴보면 병어리, 봉사, 걸인, 사기꾼, 점쟁이, 무당, 숲장수, 산  
골 아낙네 등 시정의 인물 내지는 몰락 사대부이다. 이렇듯 주로 하  
층민을 중심으로 입전한 것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정인과 전문  
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새로이 인식하고자 했기 때

29) 「마장전(馬駟傳)」,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민옹전(閔翁傳)」, 「광문자전(廣文者傳)」,  
「양반전(兩班傳)」, 「김신선전(金神仙傳)」, 「우상전(虞裳傳)」 등 모두 7편의 전이 실려 있  
다. 「역학대도전(易學大盜傳)」, 「봉산학자전(鳳山學者傳)」은 제목만 전한다.

문이다. 또한 일부러 비도덕적 행동을 한 인물을 입전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기존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풍자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옥의 「류광역전」 가운데 첫머리 부분으로 온 천하가 온통 이익을 따르고 숭상함을 비판하였다.

천하가 버글거리며 온통 이꼴을 위하여 이리 오고 이꼴을 위하여 간다. 세상이 이리를 숭상함이 오래되었다. 그러나 이꼴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꼴 때문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이꼴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다.<sup>30)</sup>

류광역이라 인물은 과거를 지을 때 사용하는 문체가 훌륭하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던 인물이다. 그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아 대신 자신의 과거 글을 팔아 이득을 취하였다. 그는 남에게 받은 액수에 따라 시험 답안의 등급을 차이 나게 할 만큼 재주가 좋았지만 이러한 행위가 결국 드러나게 되면서 류광역은 군수에게 잡혀 압송되기 직전 밤에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고 만다. 많은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애석해하며 그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작자 이옥은 류광역을 마음까지도 팔아 버린 자의 지극히 천한 매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류광역의 부도덕한 행위만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아! 누가 알았으랴, 천하의 파는 것 중에서 지극히 천한 매매를 글 읽은 자가 하였다는 사실을. 법전法典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與受同罪)” 라고 하였다.<sup>31)</sup>

30) 天下穰穰，利來利往，世之尚利，久矣。然以利生者，必以利死，故君子不言利，小人殉利。『梅花外史』. 원문과 국역 인용은 『完譯 李鉉全集 2』,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휴머니스트, 2009. 이후에 제시되는 본 작품의 원문과 국역 인용 출처는 동일함.

마지막 언급을 통해 류광억에게서 과거 글을 샀던 고관과 문사들을 함께 비판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력이 있음에도 가난하고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자신의 재능을 떳떳하게 펼칠 수 없었던 비틀어진 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고발하고 있다. 이처럼 입전 인물 선정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속한 세계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신이 지켜보았던, 위인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다가왔던 누군가를 택할 수도 있고, 당시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할 수도 있다.

입전 동기에 따라 인물을 선정한 후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이 소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실제 인물의 삶을 서술한다는 점이며, 따라서 작자는 인물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소설의 경우에도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하여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과는 차별화 된다.

최치원崔致遠의 자字는 고운孤雲-혹은 해운海運이라고도 한다-이며 신라 서울의 사랑부 사람이다. 사전史傳이 없어져서 선대의 계통은 알 수 없다.<sup>32)</sup>

위의 내용은 『삼국사기』에 실린 「최치원전(崔致遠傳)」의 일부이다. 김부식은 이 글을 쓰면서 이전에 최치원과 관련하여 기록되었던 기록이 사라져 그 대대의 계통은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래 제

31) 噫! 誰謂天下至賤之賈, 而讀書者爲之乎? 法曰: “與受同罪.” 『梅花外史』.

32) 字孤雲 或云海雲 王京沙梁部人也 史傳泯滅 不知其世系. 『三國史記』. 원문과 국역 인용은 김부식, 『삼국사기』, 이재호 옮김, 서울출판사, 2007.

시된 남공철(南公轍)의 「최칠칠전」의 경우에도 작자는 입전한 인물의 가계와 본관이 어딘지는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최북(崔北) 칠칠(七七)의 가계와 본관이 어딘지 모른다. 최북은 이름 중 북(北) 자를 두 글자로 나누어 칠칠이라는 자(字)를 삼아 행세하였다.<sup>33)</sup>

이처럼 입전 인물과 관련하여 자료 확보가 덜 되었거나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후 서술하는 내용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마천이 인물 전기를 저술할 때, 과거에 있었던 기록과 직접적인 사료 그리고 자신의 견문을 토대로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분석, 대비해 보는 작업을 거친 것도 사실에 충실해야 하는 전기의 특성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을 짓기 위해 인물과 가까이서 지냈던 가족들이나 친지가 기록한 행장(行狀)을 중요한 자료로 삼기도 하였다. 학습자에게도 본격적으로 전기를 써내려가기에 앞서 객관적 정보 수집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해주어야 한다. 인물 선정의 다음 단계로 제시될 인물에 대한 관점 정하기도 인물에 대한 누적된 관찰과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미숙한 필자일수록 글쓰기 전 단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글쓰기의 시작은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 가는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임을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33) 崔北七七者。世不知其族系貫縣。破名爲字。行于時。『金陵集』。원문 인용은 『金陵集 二卷』, 국학자료원, 2002. 국역 인용은 진재교, 『조선 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이후에 제시되는 본 작품의 원문과 국역 인용 출처는 동일함.

## 2) 인물과 관련하여 관점 정하기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도하는 기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서술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 있듯이, 전기의 경우에도 작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인물을 서술하느냐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인물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는 전기 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입전인물 선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학습자가 입전인물과 관련하여 관점을 정하고 어떠한 면모를 부각시킬 것인지도 생각해 보도록 해야한다.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은 인물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선굴자와 그의 제자인 자목의 대화 형식을 통해 서술된다. 두 인물은 엄 행수라는 인물에 대해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 둘의 가치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도를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핏줄을 같이하지 않은 아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 그 아랫자리에서 노닐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德)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하오니 문하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sup>34)</sup>

34) 吾聞友於夫子曰。不室而妻。匪氣之弟。友如此其重也。世之名士大夫。願從足下遊於下風者多矣。夫子無所取焉。夫嚴行首者。里中之賤人役夫。下流之處而恥辱之行也。夫子亟稱其德曰先生。若將納交而請友焉。『燕巖集』. 원문과 국역 인용은 『國譯 燕巖集2』, 신호열·김명호 옮김, 민

엄 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 만하다네.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사는 일에 아주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엄 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지. 진실로 마음속에 줌도독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 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를 더 확대시켜 나간다면 성인(聖人)의 경지에도 이를 것 일세.<sup>35)</sup>

위의 글은 선굴자와 그의 제자인 자목이 나누는 대화의 일부로, 두 사람이 엄 행수라는 한 인물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가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자목은 명분에 집착하고 체면과 외양을 중시하며 선비라는 우월감을 지닌 인물이다. 자신의 스승인 선굴자에게 불만을 뜻을 표시하는 것도 스승이 사대부와 교류하지 않고 분노를 저나르는 엄 행수를 벗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굴자는 인물의 외양이나 지위보다는 분수에 맞게 진실된 삶을 살며 덕을 실천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었다. 이처럼 인물의 지닌 다양한 면모 가운데 어느 측면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격적으로 전기 쓰기에 앞서 학습자에게도 자신이 쓸 인물과 관련하여

족문화추진회, 2004. 이후에 제시되는 본 작품의 원문과 국역 인용 출처는 동일함.

35) 夫嚴行首負糞擔溷以自食. 可謂至不潔矣. 然而其所以取食者至馨香. 其處身也至鄙汚. 而其守義也至抗高. 推其志也. 雖萬鍾可知也. 繇是觀之. 潔者有不潔. 而穢者不穢耳. 故吾於口體之養. 有至不堪者. 未嘗不思其不如我者. 至於嚴行首無不堪矣. 苟其心無穿窬之志. 未嘗不思嚴行首. 推以大之. 可以至聖人矣. 『燕巖集』. 원문과 국역 인용은 『國譯 燕巖集2』, 신호열·김명호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이후에 제시되는 본 작품의 원문과 국역 인용 출처는 동일함.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를 생각토록 해야한다.

이 때는 기존의 시각이나 평가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린 평가라 하더라도 왜곡된 정보나 편견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입견을 버리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인물을 마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옥의 「류광역전」에는 경시관을 비롯하여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류광역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미천한 신분과 가난 때문에 과거 글을 파는 것으로 생계를 삼다가 결국엔 스스로 목숨을 버려야만했던 인물에 대해 동정과 연민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작자는 그에 대해 다른 평가를 내렸다.

광역이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나는 과적科賊이라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고 여겨,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마음껏 술을 마시고 이내 몰래 강에 투신하여 죽었다. 시관은 듣고 애석해하였다. 사람들은 그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군자는 “광역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말하였다.<sup>36)</sup>

작자는 군자의 말을 빌려 광역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류광역의 행위는 마음을 팔아버린 행위로, 이는 천하의 매매 가운데 지극히 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최칠칠전」의 최북은 괴팍한 성격과 기인적 면모로 당시 사람들에게 ‘광생(狂生)’이라 불릴 만큼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와 관련하여

36) 光億爲郡所收，將被送，自恐懼以爲：“我科賊也，去亦死，不如不去”，夜與親戚縱酒飲，仍潛投江死。試官亦聞而惜之。人莫不憐其才，而君子謂：“光億之死不在，是宜矣。”『梅花外史』。

여 전하는 일화들을 살펴보면 거칠고 분방했던 인물됨이 잘 드러난다. 화풍 역시 어떠한 형식이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자유분방한 개성적 표현을 즐겼는데, 시·서·화·를 겸비한 직업화가로 당시에 도 이름에 높았던 인물이다.

「최칠칠전」의 작자인 남공철 역시 최북의 기이한 언행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지만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최북의 기이한 행동과 관련하여 작품을 읽는 독자는 그저 기인이라는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세계나 자의식과 연결시켜 생각해보게 된다. 이는 인물을 바라보는 작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입전 인물과 관련하여 관점을 정할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나 언행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건의 내막, 인물의 심리까지도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단계의 학습 활동으로는 제시한 인물전 작품의 작자가 입전 인물의 어떠한 면모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였는지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쓰게 될 전기의 입전인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 그 인물의 어떠한 면모를 강조하고 싶은지도 계획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3) 개성이 드러나도록 형상화하기

인물과 관련하여 관점을 정한 후에는 자신이 이해한 인물상을 독자에게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인물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담고, 개성이 드러나도록 형상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물전의 작자는 입전 인물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먼저, 가계(家系)나 성명, 관직, 거주지 등을 언급하고 인

물의 성격이나 인물됨을 서술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정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인물을 제대로 형상화할 수 없다. 따라서 주로 전의 구성상 가장 핵심이 되는 행적부를 통해서 인물의 개성과 됨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된다. 이 때 주로 활용하는 것이 인물과 관련한 일화를 서술하는 것이다. 일화는 인물의 생애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으로, 인물의 가치관이나 품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의 특성을 몇 개의 일화를 통해 드러낸다는 점은 행장이나 연보와 같은 연대기적 서술과는 구별되는 특징이다. 몇 개의 일화를 통해 인물 전체의 상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일화의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그 인물의 핵심적이며 대표적인 행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인물의 사소한 사건이나 실수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윤곽으로서의 큰 일화와 세밀하고 사소한 일화가 잘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오히려 사소한 일화를 통해 인물의 고유한 면모가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예덕선생전」과 「광문자전」의 작가인 연암 박지원의 경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문의 표절과 답습을 일삼던 당시의 문풍을 비판하고 당시의 현실과 인간상을 여실히 묘사하고자 했다. 박종채가 아버지 박지원에 관해 기록한 책인 『과정록(過庭錄)』에는 판에 박은 듯한 구절들만 늘어놓음으로써 망자(亡者)의 개성이나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던 당시의 비지류(碑誌類) 글쓰기에 대한 박지원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옛 사람은, “얼굴이 등글면 모난 데를 그리고 얼굴이 기다라면 짧은 부분을 그린다” 라고 했거늘, 사마천의 열전과 한유(韓愈)의 비문(碑文)

이 읽을 만한 건 이 때문이다. 지금 사람들은 이 뜻을 모르고서 종이 가득히 진부한 말과 죽은 구절만 채워넣고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해야만 법도에 맞고 충실한 글이 된다” 라고 한다.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글쓰는 법인지?<sup>37)</sup>

연암은 망자의 생애를 칭송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정말 인물의 정신과 모습은 떠올릴 수 없었던 글쓰기를 비판하였다. 얼굴이 둥글면 모난 데를 그리고 얼굴이 기다라면 짧은 부분을 그려야 한다는 말은, 인물의 삶을 서술할 때 그 사람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나타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sup>38)</sup> 누군가의 생애를 서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의 고유한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인물의 개성을 살려 서술하는 방법으로 그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은 인물과 관련한 일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는 인물과 관련하여 강조하고픈 면모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일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광문자전」의 일부이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아이들이 다 함께 빌러 나가고 그중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그 소리가 몹시 처량하였다. 광문이 너무도 불쌍하여 몸소 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거지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하여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37) 古人所謂‘貌圓方寫，貌長短寫’者，馬傳·韓碑所以可讀，而今人不知此義，但取累累滿紙陳談死句，曰：‘如此然後，可謂典實。’吾不知此爲何許文法。『過庭錄』 卷四. 국역 인용은 박희병 옮김,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1998.

38) 이영호, 앞의 논문.

하였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뽕뽕 묶으니, 광문이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날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온 것이지 감히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에 나가 알아 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서 새벽녘에 풀어 주었다.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하여 가지고 떠났다.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히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水標橋)에 와서 그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 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어지고 가, 서쪽 교외 공동묘지에다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sup>39)</sup>

광문은 추위에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던 아이를 위해 구걸을 하러 나가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가 숨을 거두면서 다른 거지 아이들로 부터 오해를 사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매질을 피해 어느 집으로 숨어들었다가 도둑으로 또 다시 오해를 받는다. 다행히 광문의 순박한 말투에 집주인의 의심이 누그러들어 풀려나게 되고 곧장 수표교로 향하여 다리 밑에 던져진 죽은 거지 아이의 시체를 거두어 다시 금 고이 물어준다. 이러한 일화를 통해 조금은 바보스럽고 우직한, 그러나 인정 많은 광문의 인물됨을 엿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광문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도 옷을

39) 一日天寒雨雪。群兒相與出丐。一兒病不從。既而兒寒專纍。歔聲甚悲。文甚憐之。身行丐得食。將食病兒。兒業已死。群兒返乃疑文殺之。相與搏逐文。文夜匍匐入里中舍。驚舍中犬。舍主得文縛之。文呼曰。吾避仇。非敢爲盜。如翁不信。朝日辨於市。辭甚樸。舍主心知廣文非盜賊。曉縱之。文辭謝請弊席而去。舍主終已恠之。踵其後。望見群丐兒曳一尸。至水標橋。投尸橋下。文匿橋中。裹以弊席。潛負去。埋之西郊之塚間。且哭且語。『燕巖集』。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우스꽝스러운 시늉을 함으로써 웃음판으로 바꾸어 버리곤 했는데, 웃음으로써 다른 이들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지혜로운 면도 발견하게 된다. 또 담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내주곤 했다는 언급을 통해서 그가 담보 잡힌 물건보다는 사람을 더 믿었음도 알 수 있다.

“나는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무엇 하리.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에 들어갔다,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만치 팔만 호다.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자게 된다.” 40)

광문은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도 장가를 가지 않아 머리를 땅고 다녔고 집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팔만 호를 몽당 자기 집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욕심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광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예덕선생전』에는 엄 행수의 검소하고 청렴한 삶이 작품 속 인물인 선굴자의 입을 통해 서술된다. 사람들이 엄 행수에게 옷과 갓을 차리라고 권하면 그는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하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격식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의 사고방식이 잘 드러난다. 자칫 너무 궁상스러운 인물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법도 하지만 이어지는 서술을 통해 때와 장소를 가려 격식도 차릴 줄 아는 인물임이 강조되

40) 吾無父母兄弟妻子，何以家爲。且吾朝而歌呼入市中，暮而宿富貴家門下，漢陽戶八萬爾，吾逐日而易其處，不能盡吾之年壽矣。『燕巖集』。

어 드러난다.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야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입고 이 옷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네. 엄 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大隱)’ 이라 할 수 있겠지.<sup>41)</sup>

아래 제시된 「최칠칠전」은 짙막한 일화 몇 개를 통해 인물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최북은 출중한 그림 솜씨를 지녔지만 도화서 소속의 세속적 평안함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기이한 행동과 관련 일화들은 그의 독특한 기질과 평범하지 않은 삶을 잘 보여준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 부탁했더니 최칠칠은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한 이가 괴이하게 여기면서 화를 냈다. 그러자 최칠칠은 붓을 놓으며 일어나 말했다.

“아, 종이 밖이 모두 물 아니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자기 마음에 드는데도 돈을 적게 주면, 최칠칠은 갑자기 성내고 욕설을 해대며 그림을 남김없이 찢어 버렸다. 혹 그린 그림이 자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값을 지나치게 쳐주면 꺾꺾거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먹질하며 문밖으로 떠밀고 나서 손가락질하고는 ‘저 녀석, 그림 값도 모르는구나!’ 라고 웃었다. 이에 스스로 호(號)를 ‘호생자(毫生子)’ 라 하였다.<sup>42)</sup>

41) 歲元日朝. 始笠帶衣履. 遍拜其隣里. 乃衣故衣. 復荷畚入里中. 如嚴行首者. 豈非所謂穢其德而大隱於世者耶. 『燕巖集』.

42) 人有求爲山水. 畫山不畫水. 人怪詰之. 七七擲筆起曰. 唉紙以外皆水也. 畫得意而得錢少. 則七七輒怒罵裂其幅不留. 或不得意而過輸其直. 則呵呵笑. 拳其人. 還負出門. 復指而笑. 彼豎子不知價. 於是自號毫生子. 『金陵集』.

당시 직업화가는 도화서 화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최북은 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한 화가였다. 때문에 자신의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그림의 가치보다 더 주는 돈도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돈을 덜 줄 때에는 분개하며 그림을 팔지 않았다. 스스로의 예술 세계와 그림에 대한 최북의 대단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스스로 호를 ‘호생자’ (붓으로 사는 자)라 하였다는 구절에서도 예술가로서의 강한 자의식을 느낄 수 있다.

아래 제시된 부분은 문지기와 얽힌 몇 마디의 사소한 일화로, 오만한 듯한 최북의 성격이 효과적으로 드러나 있다.

한번은 지체 높은 분의 집에 갔을 때, 문지기가 최칠철의 이름을 부르기 곤란하여 들어가서는 최 직장이 왔다 아뢰었다. 칠철이 노하여

“어째서 정승이라 하지 않고 직장이라 하느냐?”

하니, 문지기가 말했다.

“언제 정승을 지내셨소?”

그러자 칠철은

“그러면 내가 언제 직장을 지냈더냐? 차함을 해서 기왕에 나를 높여 불러 주려 했으면 정승이라 하지 어째서 직장이라 하느냐?”

하고는 주인을 만나 보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다.<sup>43)</sup>

최북이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을 높은 직함으로 불러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양반의 직함을 붙였기 때문이다. 여항인으로서 양반관료에 대한 반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상대의 신분이 높다고 해서 자신을 낮추거나 비굴한 자세를

43) 嘗至貴人家。閻者嫌舉姓名。入告崔直長至。七七怒曰。胡不稱政丞而稱直長。閻者曰。何時爲政丞。七七曰。吾何時爲直長耶。若欲借啣而顯稱我。則豈可捨政丞而稱直長耶。不見主人而歸。『金陵集』。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종실 서평군(西平君)과의 바둑 사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함께 바둑을 두던 서평군이 돌 하나를 바꾸어 놓자고 청하자 최북은 바둑돌을 흩어버리고 다시는 서평군과 바둑을 두지 않았다고 한다. 지나치다 싶은 그의 오만함과 당당함이 잘 드러난다.

이처럼 인물의 생애와 성품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관련 일화들을 수집하여 담게 되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서술되기 쉬운 인물상이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인물간의 대화나 보다 구체적 상황 등은 작자가 어느 정도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표현해내야 한다. 그리고 생의 궤적 가운데, 어느 시점의 어느 일화를 선택할 것인지도 역시 작자의 몫이 된다. 최북과 관련한 또 다른 전기인 조희룡의 「최북전(崔北傳)」은 앞서 쓰여진 「최칠칠전」을 본뜨지 않고 독자적인 전개를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최북이 애꾸가 된 사건과 관련한 일화가 눈에 띈다. 한 귀인이 최북에게 그림을 요구했으나 얻지 못하자 그를 헐박했는데, 최북은 이에 분노하여 ‘사람이 나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나를 저버린다’고 말하고는 칼로 자신의 한쪽 눈을 찢어 애꾸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북의 저항적이며 자존적 인물됨이 더욱 강렬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같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작자가 어떠한 면모를 부각시켜 서술하느냐에 따라 일화의 선택도 달라지게 된다.

아래 제시된 글은 「류광역전」의 일부로 글품을 팔았던 류광역의 재주가 잘 드러나는 일화로, 인물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가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광역의 문사文詞는 격이 별로 높은 것이 아니고, 다만 가볍게 잔재주를 부리는 것이 장기인데, 이로써 또한 과거 글에 득의하였던 것이다.

광억은 이미 늙었는데도 더욱 나라에 소문이 났다.

경시관이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다.

“영남의 인재 가운데 누가 제일입니까?”

감사가 답하였다.

“류광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장원으로 뽑겠소.”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서로 논란하다가 광억의 글을 알아내느냐, 못하느냐로 내기를 하게 되었다. 경시관이 이윽고 과장에 올라 시제詩題를 내는데 ‘영남 시월에 중구회重九會를 여니,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탄식한다(嶺南十月設重九會，嘆南北之候不同)’ 라는 것이었다. 조금 있다가 시권詩卷 하나가 들어 왔는데 그 글에,

중양절 놀이가 또한 중음달에 펼쳐지니,

重陽亦在重陰月

북쪽에서 오신 손 남쪽 데운 술 억지로 먹고 취하였네.

北客強醉南烹酒

라고 하였다. 시관이 그것을 읽고 말하였다.

“이것은 광억의 솜씨가 틀림없다.”

주목朱墨으로 비점批點을 마구 쳐서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시권이 있어 자못 작법에 합치되므로 이등으로 하였고, 또 한 시권을 얻어 삼등으로 삼았는데, 미봉彌封을 떼어보니 광억의 이름은 없었다. 몰래 조사해보니 모두 광억이 남에게 돈의 많고 적음으로써 선후를 차등 있게 한 것이었다.<sup>44)</sup>

44) 光億之詞，無甚高，但沾沾以銛利爲才，以是亦得意於試。光億既老，尤有聲於國，京試官過監司問：“嶺南才，誰爲最?” 曰：“有柳光億者。” 京試官曰：“今行，吾必置壯元。” 監司曰：“子之鑒然乎?” 曰：“能。” 遂相與難，以光億爲賭。京試官既登場，出詩題曰：“嶺南十月設重九會，嘆南北之

위에 제시된 부분은 「류광억전」의 일화들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으로 류광억의 뛰어난 재주가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이 받은 돈의 액수에 따라 답안에 차등을 두어 각기 다른 등수로 시험에 붙도록 하였다는 것을 통해 그가 경시관의 채점 기준까지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시관과 감사 사이에 오고가는 구체적인 대화는 마치 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이처럼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거나 보다 생생하게 전하고 싶은 일화의 경우에는 작자가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물들 간의 대화나 심리 상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일화의 제시는 전기 쓰기에서 사실성·정보성과 함께 문학적 표현이 가장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이 때, 작자가 입전 인물과 관련한 사건이나 언행 등을 지켜보았던 인물이라면 기억을 돌이켜봄으로써 서술이 가능하지만, 인물과 관련한 일화가 작자의 직접적 경험 영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적 요소에 상상적 요소를 배합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물론 이 때 인물 형상화와 관련된 문학적 표현은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전기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고 기술하는 글과 구분되는 지점은 일화의 제시에 있으며, 소설과 전기를 나누는 지점은 바로 일화의 사실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화의 제시가 사실을 넘어서 작자의 상상적 추론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때 전기는 사실의 영역을 벗어나 허구의 영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sup>45)</sup>

이 단계와 관련한 학습 활동으로 제시된 작품 속의 일화를 간단히 정리해보고 각각의 일화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이나 내면세계

候不同.’ 俄有一券來呈，其文曰：“重陽亦在重陰月，北客強醉南烹酒。” 試官讀之曰：“此光億也。” 以朱亂點，等二下，擢爲魁。又有一券，頗合作，置之二。又得一券，爲第三，及拆糊，無光億名，陰謀之，皆光億受人錢貨，以貨之多少，而先後之也。『梅花外史』。

45) 이영호, 앞의 논문.

등을 짐작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쓰게 될 전기의 입전인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화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인물에 대한 평가

사마천의 『사기(史記)』 「열전(列傳)」에서 이어져 온 전기의 형식은 대체로 ‘인정기술-행적-논찬’의 3단 구성이었다. 인정기술은 입전 인물의 신원을 밝히는 부분이며, 행적은 입전 인물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한 부분이고, 논찬은 입전 인물에 대한 입전자의 논평을 가하는 부분이다. 전은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역사서의 일종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사관(史官)이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고자 한다면 분명한 표지를 통하여 따로 분리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론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경우 전은 3단 구성(인정기술-행적-논찬)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작자의 논찬 없이 2단 구성으로만 구성된 전도 존재한다. 행적부에서 작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입전 인물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다면 굳이 논찬에서 주관적 견해를 표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논찬부를 두고 있는 고전 인물전의 경우에는 인물의 생애를 칭송하거나 비판하는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칭송과 비판의 근거로서는 권위있는 글을 인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매화외사는 말한다.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

미세한 터럭과 형체 없는 꿈까지도 모두 사고팔 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파는 자는 있지 않았다.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가 없어서인가? 류광억과 같은 자는 또한 그 마음까지도 팔아 버린 자인가? 아! 누가 알았으랴, 천하의 파는 것 중에서 지극히 천한 매매를 글 읽은 자가 하였다는 사실을. 법전法典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與受同罪)” 라고 하였다.<sup>46)</sup>

이옥은 「류광억전」의 논찬에서 그의 행위에 대해 짤막한 평가를 덧붙였다. 돈을 받고 자신의 문장을 판 류광억의 행위는 지극히 천한 것이라며 단호하고도 호되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법전의 문구를 인용하여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죄’라 함으로써 류광억의 행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도덕적 문제가 아님에 좀 더 힘을 실어주었다. 사는 자가 있기에, 파는 자도 있는 법. 결국 류광억의 과거 답안을 샀던 많은 재력가들도 그 양심을 팔았기로는 매 한 가지라는 것이다.

작자는 인물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좀 더 설득력을 얻기위하여 경전이나, 법전, 고사 등을 함께 언급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입전 인물을 선정하고, 인물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여 작품을 서술하게 되므로 평가는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형상화도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도록하며, 여운을 주어 강조의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덕선생전」의 경우, 작품 속 인물인 선굴자는 제자인 자목에게 엄행수의 인물됨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중용(中庸)』, 『시경(詩

46) 梅花外史曰：天下無不賣物，有賣身爲人奴，至毛之微，夢之無形，皆有買賣，而亦未有賣其心者，豈物皆可賣，而心不可賣耶？若柳光億者，其亦賣其心者耶？噫！誰謂天下至賤之賣，而讀書者爲之乎？法曰：“與受同罪。”『梅花外史』。

經)』, 『주역(周易)』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부귀를 타고나면 부귀하게 지내고 빈천을 타고나면 빈천한 대로 지낸다.’ 하였으니, 타고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네. 『시경(詩經)』에,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소(公所)에 있으니, 진실로 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라.(夙夜在公 寔命不同)’ 하였으니, 명이란 그 사람의 분수를 말하는 것이네. 하늘이 만백성을 낼 때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명을 타고난 이상 무슨 원망할 까닭이 있으랴. 그런데 새우젓을 먹게 되면 달같이 먹고 싶고 갈포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입고 싶어지게 마련이니, 천하가 이로부터 크게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들고일어나고 농토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지. 진승(陳勝) · 오광(吳廣) · 항적(項籍)의 무리들은 그 뜻이 어찌 농사일에 안주할 인물들이었겠는가.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 수레를 탔으니 도적을 불러들일 것이다.’ 한 것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네. 그러므로 의리에 맞지 않으면 만종(萬鐘)의 녹을 준다 하여도 불결한 것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 이름에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걸세. 그런 까닭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입속에다 구슬을 넣어 주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음을 나타내 주는 걸세.<sup>47)</sup>

사대부로서의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가 의미있게 받아들일 만한 구절이나 사례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선굴자가 자목을 납득시키는 과정은 전기를 쓰는 작자가 독자를 납득시키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며, 작자 역시

47) 傳曰. 素富貴行乎富貴. 素貧賤行乎貧賤. 夫素也者定也. 詩云夙夜在公. 寔命不同. 命也者分也. 夫天生萬民. 各有定分. 命之素矣. 何怨之有. 食蝦醢. 思鷄子. 衣葛澣衣紵. 天下從此大亂. 黔首地奮. 田畝荒矣. 陳勝. 吳廣. 項籍之徒. 其志豈安於鋤耰者耶. 易曰. 負且乘致寇. 至其此之謂也. 故苟非其義. 雖萬鍾之祿. 有不潔者耳. 不力而致財. 雖圻富素對. 有臭其名矣. 故人之大往飲珠飯玉. 明其潔也. 『燕巖集』.

인물에 대한 평가를 독자가 보다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엄 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 만하다네.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나는 먹고사는 일에 아주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엄 행수를 생각하면 견디지 못할 일이 없었지. 진실로 마음속에 줌도둑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 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를 더 확대시켜 나간다면 성인(聖人)의 경지에도 이를 것일세.

선비로서 곤궁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 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그래서 나는 엄 행수에 대하여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어찌 감히 벗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 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것일세.”

하였다.<sup>48)</sup>

48) 夫嚴行首負糞擔澗以自食。可謂至不潔矣。然而其所以取食者至馨香。其處身也至鄙汚。而其守義也至抗高。推其志也。雖萬鍾可知也。繇是觀之。潔者有不潔。而穢者不穢耳。故吾於口體之養。有至不堪者。未嘗不思其不如我者。至於嚴行首無不堪矣。苟其心無穿窬之志。未嘗不思嚴行首。推以大之。可以至聖人矣。故夫士也窮居。達於面目恥也。既得志也。施於四體恥也。其視嚴行首。有不忸怩者幾希矣。故吾於嚴行首師之云乎。豈敢友之云乎。故吾於嚴行首。不敢名之。而號曰穢德先生。『燕巖集』。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분수를 지키며 사는 엄 행수의 삶은 조선의 사대부들이 추구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엄행수의 삶이 자신의 노동에 바탕을 둔 것임에 반해, 사대부들의 안빈낙도는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관념적인 차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작자는 사대부만을 대상으로 청렴결백을 논의하던 당시의 전근대적 관념에서 벗어나 소외된 천민 계층의 인물에게서 청렴한 인격을 발견함으로써 그를 존경한다는 말로 새로운 인간상,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엄 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 일컫는 다하여 진정으로 향기로운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고 있다.

인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학습활동으로는 작품에서 작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그와 관련하여 인용된 구절이나 효과적인 표현이 있다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의 입전 인물과 관련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나름의 평가를 내려보도록 함으로써 본격적인 전기 쓰기를 앞두고 가질 수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V. 결 론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6영역으로 범주화하여 내용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을 체계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반면에 언어가 가진 총체성을 간과하고 자칫 영역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흐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영역의 특수성과 영역 간의 통합성을 모두 고려한 교수·학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인식되어온 바이다. 특히 듣기와 말하기에 비해 통합성이 약했던 읽기와 쓰기의 경우에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고전 전기문학,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인물전과 관련하여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을 모색해보았다. 현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영역 간, 영역 내의 학습요소를 통합하여 지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교육 현장에서 통합 교육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문학 과목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수용과 창작을 통하여 문학 능력을 기르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요소와 활동들을 살펴보면 작품을 읽고 감상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었다.

특히 고전 문학에서 창작의 측면을 고려한 학습 요소를 찾기도 더욱 어려워지며, 고전 전기문학의 경우에는 교과서 내 작품 수록 자체도 부족하였다. 그나마도 가전의 비중이 높아 인물 관련 전기를 신고 있는 문학 교과서는 몇 군데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물의 삶을 다룬 고

전 전기문학의 경우 다양한 측면에 걸쳐 학습 요소를 지니고, 다른 산문 장르의 글쓰기 양식에 비해 내용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쓰기 교육으로의 연계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다. 또 타인의 삶을 들여다 보고 공감하며 자신의 삶까지도 되돌아보게 된다는 점에서는 정의적 측면의 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글쓰기 전의 자료수집 단계를 강조할 수 있으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 무엇을 강조하고 드러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데도 적합하다.

본고에서는 읽기와 쓰기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물의 생애를 다룬 전기문학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전기 쓰기 활동과 통합시켜 보았다. 전기 쓰기와 관련하여 『작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주로 어떠한 학습 요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리고 제시된 텍스트 가운데 고전 작품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작문 교과에서는 비문학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 쓰기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하위 항목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전기 쓰기를 다루고 있는 『작문』 교과서에서는 전기가 사실성, 교훈성, 문학성을 지닌 글쓰기 양식이라는 것은 언급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쓰기 활동을 위해 제시된 학습 활동을 살펴보면 사실성에 비해 문학성의 측면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시된 텍스트의 경우에는 고전 작품과 관련하여 다루어진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고전의 전기문학 작품과 전기 쓰기를 연결시켜 통합적으로 다룬다면 읽기와 쓰기, 이해와 표현, 감상과 창작이라는 두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과정 중심의 쓰기 이론에 근거하여 전기 쓰기의 과정을 입전 인물 선정과

자료 수집, 인물과 관련하여 관점 정하기, 개성이 드러나도록 형상화하기, 인물에 대한 평가로 나누고, 작품 감상과 함께 그와 관련하여 전기 쓰기를 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실제 전기 쓰기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으로는 박지원의 『광문자전』과 『예덕선생전』, 남공철의 『최칠칠전』, 이옥의 『류광억전』을 활용하였다.<sup>49)</sup> 구체적인 작품의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학습 요소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교육을 위한 일환으로 고전 인물전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장르끼리 또 다양한 방법으로의 통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 현재 국어과 교육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영역간의 분절성과 기능 위주의 파편화된 교육도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49) 『예덕선생전』과 『최칠칠전』은 각각 전기 쓰기의 2단계씩을 적용하여 ‘입전 인물 선정과 관점 정하기’, ‘인물의 형상화와 평가’로 부록에서 학습지를 제시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 1-1 교과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1-1 교사용 지도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1-2 교과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1-2 교사용 지도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2-1 교과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2-1 교사용 지도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2-2 교과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2-2 교사용 지도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3-1 교과서, 2009.  
\_\_\_\_\_, 중학교 『국어』 3-1 교사용 지도서, 2009.  
\_\_\_\_\_, 중학교 『국어』 3-2 교과서, 2008.  
\_\_\_\_\_, 중학교 『국어』 3-2 교사용 지도서, 2008.  
\_\_\_\_\_, 고등학교 『국어 (상)』 교과서, 2007.  
\_\_\_\_\_, 고등학교 『국어 (상)』 교사용 지도서, 2009.  
\_\_\_\_\_, 고등학교 『국어 (하)』 교과서, 2009.  
\_\_\_\_\_, 고등학교 『국어 (하)』 교사용 지도서, 2009.
-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상문연구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상문연구사, 2002.
-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교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2.
-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지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2002.
-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교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2.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케이스(현 포넷),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케이스(현 포넷),  
2002.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도서출판 태성,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도서출판 태성, 2002.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민중서림,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민중서림, 2002.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금성,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금성, 2002.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2002.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형설출판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형설출판사, 2002.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 2002.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두산,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2.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  
소, 2002.

최용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청문각출판사,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청문각출판사, 2002.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블랙박스,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블랙박스, 2002.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문원각,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문원각, 2002.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과서, (주)천재교육, 2002.  
\_\_\_\_\_, 고등학교 『문학 (상),(하)』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2002.

권두환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아침나라,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아침나라, 2004.

권영민,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주)지학사,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주)지학사, 2004.

김대행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주)천재교육,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주)천재교육, 2004.

박경현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주)금성출판사,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주)금성출판사, 2004.

박영목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주)교학사,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주)교학사, 2004.

성낙수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주)신원문화사,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주)신원문화사, 2004.

우한용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민중서림,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민중서림, 2004.

이삼형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대한교과서(주),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 2004.

이상태,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형설출판사,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형설출판사, 2004.

이익섭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학연사,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학연사, 2004.

임홍빈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주)두산,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주)두산, 2004.

최웅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청문각출판사,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청문각출판사, 2004.

한계전 외,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_\_\_\_\_, 『고등학교 『작문』 교사용 지도서』,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4.

## 2. 단행본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개정 7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8.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7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권호, 『고전수필개론』, 동문선, 1998.

김부식, 『삼국사기』, 이재호 옮김, 서울출판사, 2007.

김용덕, 『전기문학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2006.

남공철, 『金陵集 二卷』, 국학자료원, 2002.

박영목, 『작문 교육론』, 역락, 2008.

박종채,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희병 옮김, 돌베개, 1998.

박지원, 『國譯 燕巖集2』, 신호열·김명호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2000.

이옥, 『完譯 李鈺全集2』,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옮김, 휴머니스트, 2009.

조희룡, 『趙熙龍 全集6 壺山外記』, 실사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주, 한길아트, 1999.

진재교, 『조선 후기 인물전』, 현암사, 2005.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2008.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1999.

## 3. 학위 논문 및 학술지

곽정식, 「한국 전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성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김보라, 「여향인물전을 활용한 전기문학 교육 방안」,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김성진, 「글쓰기에서 관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회』 2003.

김정일, 「조선후기 여항인물전 연구」, 『국어국문학』 제21집, 2002.

김정자,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를 위한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문 교육』 제6집, 2008.

박미정, 「전기 쓰기의 지도 요소 연구」, 『작문연구』 2, 한국작문학회, 2006.

이영호, 「碑誌類 樣式을 활용한 傳記 쓰기 敎育 연구」, 『語文研究』 제34권 4호, 2006년.

임경순, 「비평적 문식력 신장을 위한 쓰기 교육-평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5집, 2002.

장정순, 「장르 개념을 활용한 쓰기 교육 : 인물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청어문 28, 2000.

주재우, 「傳을 중심으로 한 전기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4.

한철우, 「국어교육 50년, 한 지붕 세 가족의 삶과 갈등」, 『국어교육학연구』 제21집, 2004.

# ABSTRACT

## **A Study on Comprehensive Learning of Reading and Writing Using Classic Biography Literature : focusing on biographies from late Chosun Dynasty**

JinHee, Cha

Majoring in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comprehensive teaching method of reading and writing related to the classic biographies, especially focusing on biographies from late Chosun Dynasty. Current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recommends instructors to teach Korean language to the students by combining various learning factors within each domain as well as between different domains together that can lead integrative learning procedure of Korean language.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n most classrooms due to the lack of comprehensive curriculum or textbook, which resulted in difficulty of applying this goal into the actual educational fields. In case of literature, despite the nominal purpose of cultivating literary ability through reading/accepting as well as

writing/creating, learning factors and exercises suggested in the textbook usually fall short of reaching this goal, limited to only reading and appreciating the pieces.

In order to analyze comprehensive education in reading and writing,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concept and development of classic biography literature. It subsequently investigates the approach of current curriculum and textbook to the biography literature and examine what kind of learning factors receives most focus and how the proportion of classic pieces is in the textbook. Through this, the value of discussing classic biography literature from an aspect of comprehensive education spanning both reading and writing and the importance of finding directions for improving current education method are confirmed.

Next, the paper examines the biography writing sections presented in the Writing Sentences textbook in order to supplement the writing aspect in literature education that heavily emphasizes reading at present. Biography writing is categorized into a theme under the subject of “Writing for Information Delivery”. This classification, which is biased toward factual and informational characteristic of biographies, can lead to graving result where the students learn biography writing as a mere listing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life of a person without understanding its literary features. Hence, concluding that comprehensive learning process that combines

classic biography literature with biography writing will draw positive learning results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reading and writing,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and appreciation and creation, this paper looks for learning directions that can incorporate this idea.

As for the learning procedure, after leading learners' understanding and appreciating through reading by first presenting the pieces, writing exercises are suggested based on writing theory that emphasizes writing process. This not only enables the learners to simply understand the life story of the person by reading the biography, but it also guides them through learning about writing activities, which include setting characters appearing in the piece, collecting relevant data, formalizing the person that reveals his/her characteristics, and evaluating the personality.

## < 부 록 >

### 학습지① : 입전 인물 선정과 관점 정하기 -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

◎ 아래 제시된 전(傳)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 진정 향기로운 삶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sup>50</sup>

선굴자(蟬橘子)에게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벗이 한 사람 있다. 그는 종본탑(宗本塔) 동쪽에 살면서 날마다 마을 안의 똥을 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그를 엄 행수(嚴行首)라 불렀다. ‘행수’란 막일꾼 가운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한 칭호요, ‘엄’은 그의 성(姓)이다.

자목(子牧)이 선굴자에게 따져 묻기를,

“예전에 제가 선생님께 벗의 도를 들었는데, ‘벗이란 함께 살지 않는 아내요 핏줄을 같이하지 않은 아우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벗이란 이같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이름난 사대부들이 선생님을 따라 그 아랫자리에서 노닐기를 원하는 자가 많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엄 행수라는 자는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막일꾼으로서 열악한 곳에 살면서 남들이 치욕으로 여기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께서는 자주 그의 덕(德)을 칭송하여 선생이라 부르는 동시에 장차 그와 교분을 맺고 벗하기를 청할 것같이 하시니 제자로서 심히 부끄럽습니다. 그러하오니 문하에서 떠나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선굴자가 웃으면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벗을 사귀는 것에 대해 말해 주마. 속담에 ‘의원이 제 병 못 고치고 무당이 제 곳 못 한다.’ 했다. 사람마다 자기가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남들이 몰라주면, 답답해 하면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 듣고 싶은 체한다. 그럴 때 예찬만 늘어놓는다면 아침에 가까워 무미건조하게 되고, 단점만 늘어놓는다면 잘못을 파헤치는 것 같아 무정하게 보인다. 따라서 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변죽만 울리고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크게 책망하더라도 화를 내지는 않을 것이니, 상대방의 꺼림칙한 곳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비슷한 물건을 늘어놓고 숨긴 것을 알아맞히듯이 자신이 잘한다고 여기는 것을 은근 슬쩍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 준 것처럼 진심으로 감동할 것이다.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 등을 토닥

선굴자에 대한 자목의 비판은 무엇인가?

일 때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어루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뜯구름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결국 자신에 대한 칭찬이 들어 있다면, 뿔 듯이 기뻐하며 자신을 알아준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벼를 사꾼다면 좋겠느냐?”

하였다. 자목은 귀를 막고 뒷걸음질치며 말하기를,

“지금 선생님께서는 시정잡배나 하인놈들이 하는 짓거리를 가지고 저를 가르치려 하시는군요.”

하니, 선굴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전자에는 있지 않고 후자에만 있구나. 무릇 시장에서는 이해관계로 사람을 사귀고 면전에서서는 아첨으로 사람을 사귀지.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세 번 손을 내밀면 누구나 멀어지게 되고, 아무리 목은 원한이 있다 하더라도 세 번 도와주면 누구나 친하게 되기 마련이지. 그러므로 이해관계로 사귀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어도 오래갈 수 없다네. 훌륭한 사귄은 꼭 얼굴을 마주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훌륭한 벼는 꼭 가까이 두고 지낼 필요가 없지. 다만 마음으로 사귀고 덕으로 베풀면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의(道義)로 사귀는 것일세. 위로 천고(千古)의 옛사람과 베풀어도 먼 것이 아니요, 만리(萬里)나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귀어도 먼 것이 아니라네.

저 엄 행수란 사람은 일찍이 나에게 알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를 예찬하고 싶어 못 견뎠지. 그는 밥을 먹을 때는 끼니마다 착실히 먹고 길을 걸을 때는 조심스레 걷고 졸음이 오면 쿵쿵 자고 웃을 때는 꺄꺄 웃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고. 흙벽을 쌓아 풀로 덮은 움막에 조그마한 구멍을 내고 들어갈 때는 새우등을 하고 들어가고 잘 때는 개처럼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지만 아침이면 개운하게 일어나 삼태기를 지고 마을로 들어와 뒷간을 청소하지. 9월에 서리가 내리고 10월에 엷은 얼음이 얼 때쯤이면 뒷간에 말라붙은 사람똥, 마구간의 말똥, 외양간의 소똥, 해 위의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을 주옥인 양 긁어 가도 엄치에 손상이 가지 않고, 그 이익을 독차지하여도 의로움에는 해가 되지 않으며, 욕심을 부려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해도 남들이 양보심 없다고 비난하지 않는다고. 그는 손바닥에 침을 발라 삽을 잡고는 새가 모이를 쪼아 먹듯 꾸부정히 허리를 구부려 일에만 열중할 뿐, 아무리 화려한 미관이라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무리 좋은 풍악이라도 관심을 두는 법이 없지. 부귀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바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지. 따라서 그에 대해 예찬을 한

선굴자가 말하는 올바른 교유의 덕은?

다고 해서 더 영예로울 것도 없으며 험뜯는다 해서 욕될 것도 없네.

왕십리(枉十里)의 무와 살곶이(箭串)의 순무, 석교(石郊)의 가지 · 오이 · 수박 · 호박이며 연희궁(延禧宮)의 고추 · 마늘 · 부추 · 파 · 염교며 청파(靑坡)의 미나리와 이태인(利泰仁)의 토란들은 상상전(上上田)에 심는데, 모두 엄씨의 똥을 가져다 써야 땅이 비옥해지고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수입이 1년에 6000냥이나 된다네. 하지만 그는 아침에 밥 한 사발이면 의기가 흠족해지고 저녁이 되어 서야 다시 한 사발 먹을 뿐이지. 남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권하였더니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귀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 하겠느냐고 대꾸하고, 반반한 옷이나 좀 입으라고 권하였더니 넓은 소매를 입으면 몸에 익숙하지 않고 새 옷을 입으면 더러운 흠을 짚어질 수 없다고 하더군. 해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나 되어야 비로소 의관을 갖추어 입고 이웃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세배를 하는데 세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흰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삼태기를 메고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네. 엄 행수와 같은 이는 아마도 ‘자신의 덕을 더러움으로 감추고 세속에 숨어 사는 대은(大隱)’이라 할 수 있겠지.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부귀를 타고나면 부귀하게 지내고 빈천을 타고나면 빈천한 대로 지낸다.’ 하였으니, 타고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말한다네. 《시경(詩經)》에, ‘이른 새벽부터 밤까지 공소(公所)에 있으니, 진실로 명이 똑같지 않기 때문이라.(夙夜在公 寔命不同)’ 하였으니, 명이란 그 사람의 분수를 말하는 것이네. 하늘이 만백성을 낼 때 정해진 분수가 있으니 명을 타고난 이상 무슨 원망할 까닭이 있으랴. 그런데 새우젓을 먹게 되면 달같이 먹고 싶고 갈포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입고 싶어지게 마련이니, 천하가 이로부터 크게 어지러워져 백성들이 들고일어나고 농토가 황폐하게 되는 것이지. 진승(陳勝) · 오광(吳廣) · 항적(項籍)의 무리들은 그 뜻이 어찌 농사일에 안주할 인물들이었겠는가. 《주역》에 이르기를, ‘짐을 깊어져야 할 사람이 수레를 댔으니 도적을 불러들일 것이다.’ 한 것도 이를 두고 말한 것이네. 그러므로 의리에 맞지 않으면 만종(萬鐘)의 녹을 준다 하여도 불결한 것이요 아무런 노력 없이 재물을 모으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더라도 그 이름에 썩는 냄새가 나게 될 걸세. 그런 까닭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입속에다 구슬을 넣어 주어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았음을 나타내 주는 걸세.

엄 행수는 지저분한 똥을 날라다 주고 먹고살고 있으니 지극히 불결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가 먹고사는 방법은 지극히 향기로우며,

선글자는 삶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

그가 처한 곳은 지극히 지저분하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다 할 것이니, 그 뜻을 미루어 보면 비록 만종의 녹을 준 다 해도 그가 어떻게 처신할지는 알 만하다네.

선골자가 말하는 진정한 향기로움 삶이란?

이상을 통해 나는 깨끗한 가운데서도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고 더러운 가운데서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네. 나는 먹고사는 일에 아주 어려운 처지를 당하면 언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 엄 행수를 생각하면 건디지 못할 일이 없었지. 진실로 마음속에 줌도독질할 뜻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엄 행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 이를 더 확대시켜 나간다면 성인(聖人)의 경지에도 이를 것일세.

선비로서 곤궁하게 산다고 하여 얼굴에까지 그 티를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출세했다 하여 몸짓에까지 나타내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니, 엄 행수와 비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는 거의 드물 걸세. 그래서 나는 엄 행수에 대하여 스승으로 모신다고 한 것이네. 어찌 감히 벗하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 엄 행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고 예덕선생이라 부르는 것일세.”

하였다.

### ☉ 학습 활동

1. 작가가 엄 행수라는 인물과 관련하여 전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전기는 위인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만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종루의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던 광문이라는 인물로 전을 지어 남긴 연암 박지원의 경우처럼 굳이 역사 속 인물이나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니라도 인물과 관련해 하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기는 쓸 수 있습니다.

- ✎ 전기 쓰기는 다른 누군가의 삶과 가치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인물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해볼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전기를 써보고 싶은가요? 전기 쓰기를 위해 입전인물을 선정해 보세요.

나는 \_\_\_\_\_ 의 전기를 써보겠다.

✎ 입전 인물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세요.

2. 사람들은 같은 인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 글의 선글자와 자목도 엄 행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두 인물이 엄 행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 근거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세요.

	엄 행수를 바라보는 시각	그렇게 생각한 이유
선글자		
자목		

3. 그렇다면 「예덕선생전」을 쓴 박지원은 선글자와 자목이 엄 행수에 대해 나눈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 엄 행수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지 생각해 보세요.

---

---

---

✎ 앞서 전기 쓰기의 첫 번째 단계로서 어떤 인물의 전기를 쓸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인물과 관련하여 자신은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 그 인물의 어떠한 면모를 강조하고 싶은지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

---

---

---

## 학습지② - 인물의 형상화와 평가 : 최칠칠전(崔七七傳)

◎ 아래 제시된 전(傳)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 기인 화가 최북

최칠칠전(崔七七傳)<sup>51)</sup>



세상 사람들은 최북(崔北) 칠칠(七七)의 가계와 본관이 어딘지 모른다. 최북은 이름 중 북(北) 자를 두 글자로 나누어 칠칠이라는 자(字)를 삼아 행세하였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렸지만 스스로 눈을 찔러 한 쪽 눈을 잃었다. 그래서 화첩을 보고 그릴 적에는 한 쪽에 안경을 끼고 그렸다. 또 그는 술을 즐기며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였다.

최북을 최칠칠이라 부른 이유는?

어느 날 최북이 구룡연에 들어가 매우 즐거워하며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울고 있다가 이윽고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천하의 명인 최북이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으리라.”

그러고는 몸을 솟구쳐 못에 뛰어들려하였으나, 곁에 구해 주는 사람이 있어 빠져 죽지 않았다. 최북은 부축을 받으며 산 아래로 내려오다가 평평한 바위에 이르자 숨을 헐떡거리며 늪더니 갑자기 일어나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자 메아리가 산속에 울려 퍼져 숲에 깃들어 있던 매들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최칠칠은 하루에 대여섯 되씩 술을 마셨는데, 술파는 아이들이 술병을 가지고 오면 칠칠은 매번 집안의 서책이나 종이, 비단을 몽땅 가져다주고 술을 샀다. 집안의 재산이 날로 줄어들고 가난해지자, 드디어 평양에서 동래로 나그네처럼 떠돌며 그림을 팔았다. 그러자 두 지역의 사람들이 비단을 들고 끊임없이 문을 드나들었다.

한번은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 부탁했더니 최칠칠은 산만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한 이가 괴이하게 여기면서 화를 냈다. 그러자 최칠칠은 붓을 놓으며 일어나 말했다.

“아, 종이 밖이 모두 물 아니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자기 마음에 드는데도 돈을 적게 주면, 최칠

50) 박지원, 『國譯 燕巖集 2』, 신호열·김명호 옮김, 민족문화추진회, 2004.

칠은 갑자기 성내고 욕설을 해대며 그림을 남김없이 찢어 버렸다. 혹 그런 그림이 자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값을 지나치게 쳐주면 꺾꺾거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먹질하며 문밖으로 떠밀고 나서 손가락질하고는 ‘저 녀석, 그림 값도 모르는구나!’라고 웃었다. 이에 스스로 호(號)를 ‘호생자(毫生子)’라 하였다.

화가로서 최복의 어떠한 면모를 엿볼 수 있나?

최칠칠은 성품이 매우 오만하여 남을 따르지 않았다. 하루는 서평군과 백금을 걸고 바둑을 두었다. 칠칠이 한창 이기려 하자 서평군이 한 수 물려주기를 청하였다. 최칠칠이 갑자기 바둑돌을 흩어 버리며 두던 손을 거두고 말했다.

“바둑은 본래 즐기려고 하는 것인데, 무르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한 해가 다 가도록 한 판도 둘 수가 없을 것이요.”

그런 뒤 다시는 서평군과 바둑을 두지 않았다.

한번은 지체 높은 분의 집에 갔을 때, 문지기가 최칠칠의 이름을 부르기 곤란하여 들어가서는 최 직장이 왔다 아뢰었다. 칠칠이 노하여

“어째서 정승이라 하지 않고 직장이라 하느냐?”

하니, 문지기가 말했다.

“언제 정승을 지내셨소?”

그러자 칠칠은

“그러면 내가 언제 직장을 지냈더냐? 차함을 해서 기왕에 나를 높여 불러 주려 했으면 정승이라 하지 어째서 직장이라 하느냐?”

하고는 주인을 만나 보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다.

최칠칠의 그림은 날로 세상에 알려져, 세상에서는 그를 ‘최산수崔山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꽃과 풀, 동물, 기이한 돌, 말라죽은 나무를 더욱 잘 그렸고, 미친 듯한 숨씨로 장난삼아 그린 것도 보통 화가들의 숨씨를 훨씬 뛰어 넘었다.

나는 이단전을 통해 처음 칠칠을 알게 되었다. 일찍이 최칠칠과 산방山房에서 만나 촛불을 태워 가며 담묵澹墨으로 대나무 몇 폭을 그리는데, 최칠칠이 나에게 말했다.

“나라에서 수군水軍 몇 만을 두어 장차 왜倭에 대비한다 하는데, 왜는 본디 수전水戰에 익숙하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가 싸움을 걸더라도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저들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을 것인데, 어째서 삼남의 백성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고는 다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창 너머로 동이

터 왔다.

세상 사람들은 최칠질을 주정뱅이나 화가로 생각하거나, 심한 사람은 미치광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경우와 같이 그의 말에는 때로 묘한 깨달음이나 현실에 쓸 만한 생각도 있었다.


이단전에 따르면 최칠질은 『서상기西廂記』, 『수호전水滸傳』 등의 여러 소설을 즐겨 읽었고, 시를 지은 것도 기이하고 예스러워 읊조릴 만하였는데도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최칠질은 서울의 어느 여관에서 죽었는데, 그 나이가 몇이었는지 기억할 수 없다.

### ㊤ 학습 활동

1. 최북과 관련하여 제시된 일화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세요.

①	
②	
③	
④	

2. 각각의 일화들을 통해 드러나는 최북의 성격과 내면세계를 짐작해보세요.

 앞에서 입전 인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지, 그 인물의 어떠한 면모를 강조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일화를 언급하면 좋을 지 생각해보세요.

3. 최복에 대해 자신만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

---

---

---

---

✎ 앞서 입전 인물을 선정하고 부각시키고 싶은 면모를 생각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언급하면 좋을 법한 일화를 선정하고, 인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하여 전기를 완성해보세요.